濟州島硏究 제52집
2019. 8. pp. 99~157.

제주표류인 이방익의 노정에 관한 지리고증

권무일*

국문요약

본 논문은 9개월간의 표류에서 돌아온 이방익이 쓴 「표해록」과 「표해가」 그리고 「박지원」의 「서이방익사」를 근간으로 하여 그가 중국에 표착하여 거친 노정을, 필자 등이 답사하여 고증함에 의미가 있다. 충장위장(정3품) 이방익(1757-1801)은 1796년 9월 휴가를 얻어 고향 제주 북촌리를 찾았는데 우도에 묻힌 모친 묘의 완장을 위해서였다. 그는 일행 7명과 더불어 우도에 다녀오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16일간 표류한 끝에 대만해협의 팽호도에 닿았고 대만에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이방익은 당당하게 자신의 관직을 털어놓았고 상응한 대우를 이끌어냈다. 그는 중국의 하문으로 이송되었는데 주자서원에 참예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방익 일행은 가는 곳마다에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특히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있다. 이방익 등은 복건성·절강성의 경계인 선하령을 넘었고 가는 길에 유명한 명승지를 편답했고 항주와 소주에서는 유명한 사찰을 찾기도 하였다.

이방익은 자신이 다닌 노정과 경험담을 정조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정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박지원은 이방익이 말한 것이 두서가 없고 틀린 것이 많다고 전제하고 중국문헌을 검토하여 이방익이 언급한 장소를 일일이 고증하려 했다. 한편 이방익은 자신의 경험담을 썼는데 「표해가」와 「표해록

* 소설가, 역사저술가

」이다. 전자는 운문적 필체라 상세기록이 적지만 후자는 기행문이라 기록이 보다 풍성하다. 그러나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꼼꼼하지 않고 오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필자 등은 중국 탐방단을 조직하여 이방익이 걸어간 길을 걸었고 현지 학자들과의 대화 및 향토사학자들의 저서를 통하여 내용을 보충했다. 필자는 문헌을 참조하여 쓴 박지원의 글보다 이방익의 글이 진실에 가까운 점을 발견했다.

주제어 : 이방익, 팽호도, 박지원, 선하고도, 금산사

Ⅰ. 서 론

본 논문은 1796년 9월 제주사람 이방익이 제주 연안에서 폭풍을 만나 대만해협까지 표류한 후 중국 강남지방을 편답하고 북경을 거쳐 9개월 만에 돌아온 노정을 필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당시 중국의 실상과 지리를 고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2017년 평설『이방익표류기』(2017)를 단행본으로 펴낸 바 있다. 이 책은 이방익이 저술했거나 저술했다고 믿어지는 국한문가사 「표해가」[1]와 순한글 기행문 「표해록」[2]을 근간으로 하고 몇 가지 관찬문서와 사찬문서를 참조하여 썼으나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당시 중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필한 것이라 허점투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방익(1757-1801)은 제주목 좌면 북촌리 사람으로 상경하여 무겸선전관을 거쳐 충장위장[3]에 올랐다. 그는 1796년(정조20) 잠시

1) 여러 이본이 있으나 <이방익, (1914), 「표해가」, 『청춘』>을 기본으로 함.

2) 서강대가 1965년에 통문관에서 구했다고 하는데 전상욱이 찾아내어 2011년 국어국문학지에 소개했다. 겉표지는 <漂海錄 單>인데 안표지는 <표해록 단>이다.

휴가를 얻어 고향을 찾았는데 우도에 묻힌 어머니 묘를 완장(完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일행 7명과 더불어 우도에서 일엽편주를 타고 돌아오던 중 일진광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하여 9개월여 소식이 끊겼다.

1797년 윤6월 4일 이방익 등 8명이 압록강을 건넜다. 의주 부윤 심진현은 이 사실을 급히 조정에 알렸고 윤6월21일 정조는 이방익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성정각(誠正閣)에 불러 올렸다. 심진현이 보낸 장계 <의주부윤심진현이제주표인이방익등종대국출래치계(義州府尹沈晉賢以濟州漂人李邦翼等從大國出來馳啓)>는 『일성록』[4]에, 정조와 이방익의 대화내용은 『승정원일기』[5]에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방익은 정조에게 표류하게 된 경위로부터 중국을 경유하면서 보고 느낀 일들을 설명하고 노정을 세세히 아뢴다. 이방익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 듯하다. 이방익이 밟은 대만, 복건성, 그리고 양자강 유역은 고려 중기 이후 500년간 조선 사람들이 다녀온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익이 '문자를 알기는 하나 겨우 노정만을 아뢸 뿐이고 기억을 더듬어 입으로 아뢴 것도 왕왕 차서를 잃었음'(박지원 저, 신호열, 김명호 옮김, 2007: 14)을 안타까워한 정조는 면천군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을 불러 이방익의 일에 관한 명문장을 주문했다. 박지원은 이방익을 만나 대담하고 언문기록을 얻어냈다. 그래서 박지원이 지어 바친 글이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박지원 저, 신

3) 충장위장은 조선 시대 무관직으로 임금이 옥좌로 자리를 옮기거나 궐내에서 거동하거나 종묘대제를 지낼 때 밀착 경호하는 직책으로 정3품 또는 종2품이 임명되었다.
4) 『일성록』, 1797년 윤6월 10일.
5) 『승정원일기』, 1797 윤6월 21일.

호열, 김명호 옮김, 2007)이다.

박지원은 이방익이 말한 지명이나 사물의 이름에 오류가 많고 상황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이방익의 말보다는 옛 사람들의 말과 전고(典故)를 근거로 삼으려 했다. 박지원은 처남 이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방익이 말한 것은 상세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사물의 이름에 어긋난 것이 많고 사실에 대한 서술이 적실하지 못하다. 또한 산천, 누대(樓臺), 지나온 주군(州郡)의 도리(道里)에 틀린 것이 많을 것 같으므로 언문기록을 모두 따라서는 안 된다(박지원 저, 정민, 박철상 역, 2005: 380).

그는 청나라 임겸광(林謙光)의 『대만기략(臺灣記略)』, 북송 때의 소설총집 『태평광기太平廣記』, 명나라 때의 지리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등을 참조하여 이방익의 노정에 관한 지리고증을 시도했다.

이방익은 귀국 후 「표해록」 및 「표해가」를 썼는데 박지원이 말한 것처럼 비록 중국 사정이나 학문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장을 다녀왔던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썼다는 점에서 가보지 않은 곳과 사물을 서술하면서 정작 가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선인들의 글과 문헌을 근거로 삼아 쓴 「서이방익사」와 크게 비교된다.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방익이 가본 곳, 지나친 곳을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고증하고 또한 박지원이 시도했던 고증을 재고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 가본 사람(이방익)이 보았다는 것을 가보지 않은 사람(박지원)이 부회(府會)하고 더러는 부정한 것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 등은 근래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서 중국탐방을 감행했다. 우리 탐방단은 1차로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팽

호도와 대만을, 2차로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복건성을, 3차로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국을 다녀왔는데[6] 중국 여행에는 제주주재 중국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았다.

이에 필자는 이방익이 지나간 노정을 따라가면서 제도·문물·풍속·인정·고적·역사의 현장을 답사하여 이방익의 행적을 확인하고 제주인 이방익이 조선인으로, 세계인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그리며 18세기경 대만해협과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국제적 상황, 중국사회의 변화, 백성들의 생활상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급격하게 변모하는 강남의 모습을 탐구할 것이다. 이번 이방익의 노정을 고증함에 있어 이방익이 쓴 「표해가」, 「표해록」의 기록을 추적하고 박지원의 「서이방익사」,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Ⅱ. 이방익의 표류기록

1. 기행가사 「표해가」

최남선이 1914년에 발행한 『청춘』지 창간호에 '넷글 새맛'이란 부제가 붙은 국한문 「표해가」 한편이 실려 있는데[7] 이방익이 쓴 것으로 확실하게 여겨지는 작품이다. 「표해가」는 국한문을 섞어 3·4 또는 4·4조의 운문으로 꾸민 장편가사이다.

「표해가」에서 이방익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다에 내동댕이쳐져 목적지도 없고 정처도 없으며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극한상

6) 탐방단의 구성: 1차 필자·심규호·노인숙·진선희, 2차 필자·심규호·노인숙·유소영·진선희, 3차 필자·심규호·강만생·노인숙·유소영·진선희.
7) 이방익(1914), 「표해가(넷글 새맛)」, 『청춘』 창간호. 144-152쪽.

황을 군더더기 없이 축약된 시어로 읊었다. 바다를 떠돌다 수몰될 절망감을 넘어 당장 기갈로 인하여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긴급 상황을 그렸고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 기갈을 면한 장면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그는 팽호도에 표착하여 대만과 중국대륙을 거치면서도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어떤 경로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에서 중국의 문물·제도·풍속·인정·도중의 풍경과 고적 등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삽입하고 제어할 수 없는 감흥을 솔직하게 썼다. 일인칭으로 자신의 기행과정을 운율에 맞춰 서술하고 있는데 웅장한 필치와 시적 감흥이 돋보인다. 「표해가」는 서울장안에서 오랫동안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듯하다. 그 이유로는 생사에 얽힌 흥미진진한 사건, 새로운 풍물 소개, 가보지는 않았으나 익숙한 역사현장 등의 내용과 더불어 입으로 불려지는 가사체라는 형식에도 크게 힘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청춘본 「표해가」의 이본으로 보이는 작품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용기(李用基)가 펴낸 『악부』에 실린 「표해가」다. 이용기는 서울 출생으로 학문은 깊지 않으나 선비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그는 한량으로 장안의 뭇 기생들이 다 알 정도로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10여년에 걸쳐 1,454곡을 수집하였는데 그 중에 이방익의 「표해가」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새로운 노래를 들을 때나 전에 들은 노래에도 새로운 가사가 보이면 그때마다 보수함으로서 완전한 노래의 채집을 위하여 정성을 들였다는데 그래서 완성한 책이 『악부』이다. 그가 1933년에 작고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그 이전에 완성한 것인데 이은상(李殷相)이 보관하고 있다가 고려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이용기 편, 정배호, 김흥규, 전경욱 주해, 1992). 이 책에 실린 「표해가」의 내용은 <청춘본>과 대동소이하다. 이 책은 이방익의 「표해가」가 1930년대에도 엄연히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해가」의 또 다른 이본은 『아악부가집』(김동욱, 임기중 공편, 1982)에 실린 글이다. 이는 원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가 소장했던 것인데 서울대학교도서관 가람문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농괘지에 철필로 썼으며 「표해가」 말미에 1934년 2월이라고 적혀 있다. 내용은 <청춘본>과 대동소이하다.

세 번째 이본은 북한 학자 고정옥과 김삼불이 주해하고 평양국립출판사에서 펴낸 『가사집』(1955)에 실린 글이다. 이는 남한에서 아직 가사에 관심을 두지 않던 1950년대에 쓴 가사집이어서 주목을 끌 만하다. 여기서의 「표해가」는 순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한글만으로 해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해에서 한자를 병기했다.

위 4본의 「표해가」는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청춘』지에 실린 글이 최초의 것이며 이방익이 썼다고 추정되는 원본과 같은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표해가」의 이본이 여럿이라는 것과 1797년의 사건이 백년이 넘도록 입에서 입으로, 또 기방에서까지 불리었다는 사실은 「표해가」의 대중적인 인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2. 순 한글 서사문 「표해록」

2011년 『漂海錄 單』이라는 겉표지를 한 책자 하나가 발견됐다. 이 책은 1968년에 서강대가 고서점 '통문관'에서 구입하였는데 겉표지에는 한자이지만 속 글은 한글 정자체로 필사되었다. '탐나 북촌에 사는 이방악은'으로 시작되는 이 기록은 대부분 「표해가」의 내용과 겹치는데, 서사문인 만큼 총16,000의 분량에 이른다. 「표해가」의 분량이 4,500자임을 감안하면 4배 정도의 분량이다(전상욱, 2011). 한 연구자가 찾아낸 「표해록」은 이방익 연구, 나아가서 이방익의 작품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방익은 의주부윤 그리고 정조와의 대화과정에서도 자신의 표해 과정 그리고 중국 견문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술회하였다. 이방익이 전주중군으로 있을 때 박지원이 이방익에게 표류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이방익은 생환직후 한글「표해록」을 남겼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시기로 보면 「표해가」를 쓰기 전이다.

「표해록」은 애초에 이방익이 작성했다고 믿어지지만 <서강대 본>은 이방익의 필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두에 이방익을 '이방악'이라 표기한 점, 그리고 말미에 '부귀로 디내다가 년만션죵ᄒᆞ니라.'하여 제 3자의 사연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렇다. 또한 내용 중에 몇 군데 개칠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방익 자신이 쓴 원본은 아니다. 그러나 기행과정의 세세한 기록과 솔직한 표현을 감안하면 이방익이 쓴 원본을 누군가 필사하고 첨삭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모든 관변문서는 물론 개인적인 글짓기도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시조와 가사와 같은 운문과는 달리 서사문의 경우 한문형식이 독차지하였다. 영·정조 때 쏟아져 나온 국문소설이나 규방여인들이 쓴 일기를 제외하면 한글서사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표해록」은 한글 기행문이란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갖는다.

무인인 이방익은 한문은 사용했으나 문장에 능하지 않았다. 무인이라 한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경험담을 한문으로 문자화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선비들에게 이는 무식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익은 자신의 기행체험을 순한글로 남겼다. 또한 「표해록」에서 이방익은 호방하고 능란한 표현을 구사했는데 낱말의 선택과 언어 구사능력, 그리고 많은 경험과 많은 독서를 통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이방익의 어휘력은 여느 문장가를 뺨칠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이 문장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

낱말의 뿌리와 어미(語尾)의 변화는 국어학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표해록」은 한국문학사는 물론 국어학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Ⅲ. 이방익의 표류 및 송환경로

이방익 등 8명이 제주 연해에서 표류하여 귀국하기까지의 이동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에서 충장위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호행하던 이방익은 잠간 휴가를 얻어 고향 제주를 찾는다.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고향을 떠나있는 동안 외롭게 늙어가던 어머니가 수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도의 친정에 몸을 의탁하였던 터라 어머니 묘소는 가묘상태로 우도에 묻혀 있었다. 그는 고향 북촌리 사람들 5명 그리고 수하 병졸 2명과 더불어 작은 어선을 빌려 타고 우도로 향했다. 섬에서 외롭게 죽어간 어머니의 시신을 고향 선산으로 이장하고자 함이었다.

1796년(정조20년) 9월20일 아침나절에 그들은 북촌리를 떠났고 우도에 이르러 이장절차를 마치고 오후에 배를 타고 되짚어오고 있었다. 술과 안주를 마련한 터였고 오후 한라산에 비쳐 영롱하게 빛나는 태양과 청홍비단 천만 필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연출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만취하여 뱃전을 두드리며 흥취에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어 배는 태산같이 높은 물결에 휩싸여 버렸고 돛과 돛대, 노와 삿대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음식과 술과 물은 뒤엎어져 사라지고 말았다.

배는 가을에 부는 서북풍에 휘말려 동남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일행은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처지로 죽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륙일이 지나자 저 멀리 동남쪽에 세 개의 큰 섬이 보였다. 이방

익 등은 일본의 어떤 섬이라고 생각하며 하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서남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그간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부러진 돛대에 매달려 물을 받아먹었다. 그들은 목은 축였지만 아무 것도 먹지 못했는데 표류한지 10여 일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선판에 큰 고기가 뛰어오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제주연안까지의 해저에는 천봉만학이 드리워져 있어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나지만 제주남쪽의 바다 즉 동중국해는 해저가 평탄하고(장한철 지음, 정병욱 옮김, 1993: 58-59) 완만한 수심 100-200m의 대륙붕지역이라 심한 파랑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방익 일행의 일엽편주가 16일간 밤낮으로 무려 6,000리를 흘러가면서도 전복되거나 파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면서 죽는 것보다 당장에 닥친 기갈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북서풍은 만주 벌판을 거쳐 황해에 닿고 다시 제주해협을 거쳐 한라산을 휘돌아 동중국해로 이동한다. 늦가을과 초겨울의 북서풍은 거의 비를 동반하지 않는다. 바람은 태평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북위 30도를 지나면서 북동풍으로 바뀌는데, 바로 이 바람이 비를 동반한다. 이방익이 탄 배는 처음에 북서풍에 밀려 일본의 서남쪽으로 표류했는데, 오륙일이 지났을 때 돌연 바람의 방향이 북동풍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 바람은 한 줄기 큰비를 몰고 왔다. 여덟 사람은 부러진 돛대를 얼싸안고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먹고 기갈을 면했다. 겨울철 제주 또는 한반도 남해안 인근에서 표류하는 배들이 북서풍에 밀려 일본 남쪽이나 유구에 닿아 어떤 끄나풀을 잡아 하선하면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지만 거기서 표착에 성공하지 못하면 북동풍에 밀려 중국 동남쪽 바다 또는 남쪽 바다로 장시간 표류하여 살 길이 어려워진다.

표류한지 16일이 되었을 때 큰 섬이 앞에 보였다. 배는 섬 북쪽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되었고 그들은 바닷가 너럭바위로 튕겨져 나왔다. 대만해협상의 팽호도 북섬이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섬 사람들은 그들을 극진히 보살폈다. 섬 사람들은 이방익 일행을 마조궁으로 데려갔고 거기의 지도자인 마궁대인은 이방익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방익을 따로 불러 이방익의 신상과 표류과정을 상세히 물었다. 이방익은 자신을 쌀장사꾼으로 둘러대다가 마궁대인의 따가운 눈초리에 눌려 자신은 제주사람이고 정3품의 충장위장에 있었음을 고백했다. 마궁대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방익 일행은 팽호도에서 한 달간 조섭(調攝)하고 대만으로 이송되었다. 대만에서는 군사령부로 보내졌는데 대만부의 최고위 관원들이 함께 모여 이방익을 극진히 대우했다.

그들이 바람 잦기를 기다려 대만해협을 건넜는데 중국 남단 하문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 정월 초4일이었다. 숙박을 위해 안내된 주자서원에서 이방익은 우선 주자 조상(彫像)에 참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가 참배를 마치자 수백 유생들이 예를 갖추어 그를 대했고 이런 사실은 주자의 고향이면서 주자가 학덕을 세운 복건성에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이방익 일행은 복건성 포정사의 조치를 기다리며 하문에서 16일간 머물다가 봉성·천주·흥화부를 거쳐 복건성의 성도인 복주에 도착했고 거기서 40일간 머물면서 멀리 황제의 윤허를 기다려야 했다. 이방익 일행은 드디어 황제가 보낸 호송관을 따라 남평을 거치고 선하령을 넘어 절강성으로 들어갔고 항주에 이르렀다.

이왕 중국에 온 김에 역사가 서려 있고 고사와 전설이 묻어 있는 유적지와 옛날 중국을 뒤흔들던 전적지를 답사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이방익은 일행과 더불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동정호를 찾았고 악양루에 올랐다. 되짚어오는 길에 그는 옛날 초한(楚漢)이 각축을 벌이던 구강(九江)을 둘러봤고 삼국시대 조조가 제갈량의 계략에 속아 참패를 당했던 적벽강을 찾았다. 그는 소주에

들러 웅장한 사찰들을 두루 방문했고 기녀들과 뱃놀이를 즐기며 한껏 흥취를 돋우기도 하였다.

이방익 일행은 산동반도를 거쳐 북경에 도착했고 청나라 황제의 재가를 얻어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은 1797년(정조21년) 윤6월 4일에 의주에 도착했는데 의주부윤 심진현은 파발마를 띄워 이 소식을 임금께 알렸다. 윤6월 20일, 표류한지 무려 9개월 만에 서울에 도착한 이방익은 당일에 아버지를 뵈었고 다음날 임금을 알현했다.

<표 1> 이방익의 표류 및 송환일정(「표해록」을 중심으로)

경 유 장 소	날 짜	비고
표해기점(제주도)	1796년 9월 20일	「서이방익사」 9.21
표착지(팽호도)	10월 6일	「표해가」 10.4
대만 도착	10월 28일	「일성록」
대만 출발	12월 25일	악천후로 인해 대만에서 50일간 체류
하문 도착	1797년 1월 4일	
하문 출발	1월 17일	포정사의 승인을 기다림
복주 도착	2월 2일	
복주 출발	3월 12일 (『일성록』)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선하령	3월 26일	
항주 도착	4월 8일	
항주 출발	4월 15일	5일 만에 악주 북문에 도착
구강 도착	4월 19일	
양주 도착	4월 25일	
강동성 출발	5월 3일	마차를 타고 산동성을 경유함
북경 도착	5월 9일	
북경 출발	6월 1일	
의주 도착	윤6월 4일	
서울 도착	윤6월 20	

Ⅲ. 표착지의 지리적 고증

1. 팽호도

이방익 일행은 표류한 지 16일 만에 이름 모를 섬 해안에 닿았다. 이방익은 몰려온 사람들의 복장을 보고 거기가 중국 땅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조정에서 무겸선전관으로 있을 때 임금이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 임금을 호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익이 글로 써서 물어보니 이곳은 복건성에 속하는 팽호도(澎湖島)라는 것이다. 그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십월초ᄉᆞ일[8]의 됴일이 놉흐며 큰셤이 뵈거ᄂᆞᆯ 팔인이 흔가지로 ᄀᆞ르쳐 이제ᄂᆞᆫ 우리 사라나리로다. ᄇᆡ돗ᄃᆡ와 키를 일헛ᄂᆞᆫ디라 인력으로 엇지 ᄒᆞ리오. 풍낭의 님의로 츌몰ᄒᆞ여 계유 셤 북언덕의 다히고 졍신을 슈습하여 서로 븟들고 언덕의 긔여올나 도라보니 ᄇᆡ는 믈결의 ᄊᆡ여지고 셕경은 츰암흔ᄃᆡ 졍신이 혼미ᄒᆞ여 세상인 듯 구쳔인 듯 팔인이 언덕을 의지ᄒᆞ여 누엇더니 이윽고 졍신을 출혀 ᄉᆞ면을 도라보니 고국은 망망ᄒᆞ고 안하의 뵈ᄂᆞᆫ 거시 만경챵파의 무인지경이오 외로온 셤뿐이라. ᄒᆡ음업슨 눈믈이 비오듯 ᄒᆞ고 인가을 엇디 ᄒᆞ면 ᄎᆞ즐고 서로 보며 니ᄅᆞ더니 홀연 ᄒᆞᆫ 사ᄅᆞᆷ이 먼니셔 여허보고 가더니 식경이 남은 후의 수ᄇᆡᆨ인이 흔가지로 니어오며 므슨 말을 지져괴며 갓가이 다ᄃᆞ거ᄂᆞᆯ 다시 보니 나ᄂᆞᆫ 듕국사ᄅᆞᆷ인 줄 아되 칠인은 서로 울며 니로되 이ᄯᅳᆫ 어ᄂᆡ 나라히며 져 오ᄂᆞᆫ 사ᄅᆞᆷ은 엇던 사ᄅᆞᆷ인고? 우리 ᄉᆞ생을 오히려 아디 못ᄒᆞ리로다. 내 니로ᄃᆡ 뎡미년의 무겸션뎐관으로 시위의 셔실 ᄊᆡ[9] 듕국

8) 이방익이 표착한 때를 「표해록」 그리고 「표해가」에서도 10월 초4일이라고 한 반면 이방익이 정조를 만난 자리에서 그리고 박지원을 만나서는 10월 6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익이 16일간 표류했으니 10월 6일에 표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정미년은 1787년(정조11년)이며 당시 이방익은 무겸선전관으로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임금을 호위하였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의 복장을 익히 알고 있었다.

사름의 의복 모양을 보니 시방 뎌 오는 사름과 흔가지니 죠곰도 의심티 말고 이시라 ᄒᆞ엿더니 수빅인이 와 둘너셔셔 서로 보며 므슨 말을 이른들 엇디 알니오. 우리 팔인의 의지ᄒᆞ여 젼부 ᄒᆞ는 거동을 보고 혹 븟들며 혹 ᄉᆞ으러가니 위ᄒᆞ고 영거ᄒᆞ여[10] 가는 ᄯᅳᆺ이 감샤ᄒᆞ더라. 삼니는 가더니 삼십여호 대촌이 다 기와집이오, 계견우마가 다르미 업더라. 구경ᄒᆞ는 사름이 길이 메여시나 긔갈이 ᄌᆞ시ᄆᆞ매 서로 통졍ᄒᆞᆯ 길이 업는디라. 즉시 집으로 드리거ᄂᆞᆯ 입을 ᄀᆞ르치고 ᄇᆡ를 두ᄃᆞ려 긔갈을 이긔디 못ᄒᆞ는 거동을 뵈니 즉시 미음을 나오고 져즌 옷ᄉᆞᆯ 벗겨 말뉘여 닙히니 은근ᄒᆞᆫ 거동이 아국사름과 ᄀᆞᆮ더라. 일야를 디닌 후 졍신이 졈졈 나으니 죽을 ᄆᆞ음은 젹고 언제나 고국의 도라갈고 반반[11]ᄒᆞᆫ 눈믈이 옷시 젓더니 느즌 후 방 밧긔 나와 보니 큰 공히집의 현판이 문 우히 잇는ᄃᆡ 곤덕ᄇᆡᆨ쳔당[12]이라 ᄒᆞ엿거ᄂᆞᆯ 글노뼈 므른즉 답ᄒᆞ되 이곳즌 듕국 복건싱 밧셤 ᄑᆡᆼ호부지경이라 ᄒᆞ더라(「표해록」[13])

팽호도 즉 팽호제도는 대만 서안에서 50km, 중국 하문(廈門)에서 120km(동경120도, 북위23도의 북회기선)에 위치한 대만해협상의 섬이며 대만의 일개 현으로 인구는 12만 정도이다. 모두 66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사는 섬은 19개 정도이다. 그 중에서 팽호도, 백사도, 어옹도가 가장 큰 섬들이다. 팽호현의 현도는 마공시(馬公市)이다. 섬들은 평탄하여 산이나 구릉지가 없다. 사시사철 바람이 심하고 강수량(연 평균 1,000mm)이 적어 대부분 척박한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지만 특이한 방법으로 채소를 가꾸어 먹는다. 현무암으로 밭담을 쌓아 채소밭을 일구

10) 영거(領去)하다: 함께 데리고 가다.
11) 반반(斑斑): 얼룩지다.
12) 곤덕배천당(坤德配天堂): 마조교(媽祖敎)의 교리로 땅과 하늘의 은덕을 기리는 집이라는 뜻.
13) 본 논문의 인용문에서 「표해록」은 이방익이 썼다고 추정되는 서강대 소장 순한글 「표해록」을, 「표해가」는 『청춘』지에 수록한 이방익 저작의 「표해가」를 지칭한다. 위 「표해록」에는 쪽수 표기가 없어 주석에도 쪽의 표기를 하지 않았다.

는데 밭담의 모양은 제주도와 흡사하다.

팽호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정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섬으로 내지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다 못해, 또는 죄를 짓고 도피해 살곤 했고 더러는 해적의 근거지가 되어 중국 남부 연안에 출몰하면서 노략질을 일삼기도 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동점의 시기에 팽호도는 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 상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622년에는 네덜란드가 대만을 점령하면서 이곳도 아울러 점령하여 중국과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네덜란드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명나라의 복원을 꿈꾸던 정성공(鄭成功)이 복건성을 중심으로 저항하다가 대만으로 물러가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웅거할 때 팽호도를 전진기지로 삼아 어옹도에 두 개의 포대를 세우고 청나라와 끈질긴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청나라가 대만을 점령하면서 많은 화교들이 여기 팽호도에 둥지를 틀고 서방과의 교역을 벌였기 때문에 이방익이 찾았을 때의 팽호도는 무역선이 폭주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

2018년 4월 28일 팽호도에 도착한 우리는 이방익이 '섬 북쪽 언덕'에 닿았다고 하니 북쪽의 백사도로 가기로 했다. 본섬과 백사도는 교량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백사도에서 배를 타고 최북단 지베이섬(吉貝島)으로 향했다. 백사도에서 지베이 남항까지 배로 15분이 소요되고 거리가 약 15km 정도로 이방익은 5리쯤 된다고 했다. 지베이 남항에서 북단까지는 4km쯤 되는데 현지인 사(謝) 선생은 북쪽으로 돌출한 곶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이곳을 이방익 일행이 표착했을 곳으로 지목했다.

석호구(石滬區)라고 부르는 이곳 언덕에서 바라보니 저 멀리에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데 이방익이 이를 일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만경창파 무인지경이요 외로운 섬뿐'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가까운 바다에 여(물속에 잠겨 보일 듯 말듯 한 바위)가 여럿 있어 물결 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다로 뻗은 너럭바위는 제주도의 빌



[사진 1] 팽호도(표착지 추정)

레처럼 검은 현무암이다. 너럭바위 앞 얕은 바다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인공으로 둘러쌓은 돌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제주도의 원담과 흡사하다. 여기서는 석호(石滬)라고 부른다. 우리가 서있는 완만하고 낮은 언덕은 지친 이방익 일행이 기어오르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석호는 원시적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돌담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전해오던 것으로 팽호도에는 현재 574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팽호도는 쿠루시오(흑조)해류가 경유하는 곳이어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사방의 얕은 바다에 산호초가 깔려있고 현무암이 형성되어 있어 수천 년 전부터 석호를 쌓아 고기를 잡는 기술이 축적되어 왔다. 해안가 사람들은 현무암과 산호초를 얽어 담을 둥글게 쌓고 수문을 만들어 밀물과 썰물, 바람의 방향을 관찰하면서 합심하여 고기를 잡는다.

필자는 이방익 일행이 우리가 서있는 이곳에 표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는 바람의 방향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겨울철 황해를 거쳐 불어오는 북서풍은 북위 30도에서 동남풍으로 바뀌고 그 바람은 대만해협으로 빠져나간다. 이방익은 이 바람을 따라 팽호도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둘째는 쿠루시오해류의 영향이다. 발해에서 기원한 해류는 황해를 지나 제주도를 거쳐 중국대륙연안을 따라 남중국해로 흐르고 다시 대만해협으로 빠져나간다. 바로 팽호도가 이 해류의 길목인 셈이다. 지베이 북단인 석호구 해변에는 중국제 음료수병이 널려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 음료수병(업소용)을 발견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낮은 언덕에는 지름이 1m가 넘고 길이가 10여m나 되는 통나무가 떠

내려와 있다. 사 선생에 의하면 근래에도 여러 구의 시신이 여기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는 해안 가까이 여기 저기 박힌 여 때문이다. 이방익의 배는 일엽편주로 돛대와 키도 부러지고, 노와 상앗대도 날아가 버렸고 닻과 닻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바다에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떠다니는 널빤지나 가랑잎과 다를 바 없어 육지나 섬에 가까이 가도 그냥 맴돌다 조수에 밀려 멀어져갈 뿐이다. 이방익은 언덕에 닿을 때의 광경을 「표해록」에서 '언덕에 올라 보니 배는 물결에 깨어지고…'라고 했고 「표해가」에서 '탓던 배 도라보니 편편이 파쇄하여 어대 간 줄 어이 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배가 여에 부딪히는 순간 8인은 깊지 않은 바다로 튀어나갔을 것이다. 다섯째 조류와 석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밀물 때 석호의 입구를 열어놓고 물이 빠질 때 막아놓아 갇힌 고기를 잡는 일인데 어부들은 조석(潮汐)에 따라 석호를 관리하게 된다. 이방익이 표착한 지점은 마을에서 5리 떨어져 있지만 풀과 나무가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다. 이방익을 발견한 사람은 석호를 찾은 어부임에 틀림없다. 그 어부 아니면 이방익 일행은 5리조차도 걸을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해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방익 등 8인을 목격한 어부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온다.

지베이섬에는 포구의 상점가 말고 동쪽 해안에 400여 년 전에 형성된 한 마을이 있는데 이방익 일행이 표착했을 북단에서 남쪽으로 약 2km쯤 된다. 이방익은 「표해록」에서 '3리를 가니 30여 호의 큰 마을이 나타나는데 다 기와집이요 닭과 개와 소와 말이 있다'고 했고 「표해가」에서 '五里밧 瓦家大村 鷄犬牛馬 繁盛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곳임이 틀림없다.

이방익 일행은 마궁(馬宮)이라는 곳으로 안내되는데 그곳의 우두머리 마궁대인은 이방익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극진한 대접을 한다. 마궁은 마조묘(媽祖廟) 또는 천후궁(天后宮)이라 불리는데 마조신을 믿는 신앙은 팽호도 뿐만 아니라 대만 나아가서 중국본토에

서도 민간신앙으로 뿌리내렸다. 마궁대인을 접한 이방익은 그의 엄숙하고 늠름한 풍채, 묘당의 웅장함, 그리고 제례의식에서 종교적 의미를 파악했지만 표현은 자제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은 마조신앙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다. 박지원은 이방익이 마공(馬公)을 마궁으로 잘못 안 것 같다며 마궁대인은 마씨 성을 가진 통판이라고 오해했다.

> 뉵칠 일을 머믄 후의 팔인이 다힝이 여샹하믈 보고 ᄉᆞ재와 글노써 니로대 마궁대인이 너희를 불너 문목ᄒᆞ려ᄒᆞ니 나오라 ᄒᆞ거ᄂᆞᆯ 즉시 가니 븟드러 ᄎᆡ면의 올니고 오리를 가니 마궁아문이라. 당 좌우의 수ᄇᆡᆨ ᄎᆡ션을 ᄆᆡ엿고 ᄎᆡ션 우희 그림집이 단쳥이 영농ᄒᆞ여 믈속의 빗최니 눈이 현황ᄒᆞ여 그림 속으로 가ᄂᆞᆫ 듯ᄒᆞ더라.(「표해록」)

마궁대인은 이방익 일행 8명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자기네 지역까지 이른 것은 마조신의 섭리라고 굳게 믿은 듯싶다. 표류한지 오륙일 만에 비를 내려주어 갈증을 면하게 한 일, 뜻밖에도 큰 물고기를 선판에 뛰어오르게 하여 아사를 면하게 한 일, 팽호도 북단의 바위에 닿게 하여 그 표류인들이 해변에 던져진 일 등은 마조신이 베푼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여 그 뜻을 기린 것 같다. 민속박물관 역사관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이 걸려 있다.

> 1796 嘉慶元年
> 朝鮮李邦翼等8人遭風漂流澎湖次年返國後·著<漂海歌>敍述此行特殊經驗
> (1796 가경원년 조선 이방익 등 8인이 바람을 만나 팽호로 표류하였고 다음 해 고국으로 돌아간 후 <표해가>를 지어 이번 행보의 특별한 경험을 서술하였다.)



[사진 2] 이방익표착기록(팽호도 민속박물관)

2. 대만의 상륙지점

「표해가」에서 이방익은 팽호도를 떠난 배가 5일 만[14]에 대만부에 당도했는데 선창 좌우에는 단청한 어정과 무수한 상선이 있다고 썼고 「표해가」, 「표해록」 및 「서이방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風勢는 和順하고 日色은 明朗하니
臺灣府가 어대매뇨 五日만에 다닷거라
선창좌우에는 丹靑한 漁艇이요
長江 上下에는 無數한 商船이라
鍾鼓와 笙歌소래 곳곳이서 밤새오니
四月八日 觀燈인들 이 갓흘 길 잇슬소냐(「표해가」)

이날 마공 앏히셔 비을 타고 셔븍간[15]을 향ᄒᆞ여 갈ᄉᆡ 일긔 명낭ᄒᆞ고 풍셰 화슌ᄒᆞ니 배가 ᄲᅡ르기 살가듯 ᄒᆞ는지라. 무변대하를 오일만[16]의 득달ᄒᆞ니 ᄯᅩᄒᆞᆫ 셤이로되 슈구 좌우 너른 션창의 단쳥ᄒᆞᆫ 어정

14) 「서이방익사」, 『일성록』, 『승정원일기』에서는 공히 2일 만으로 표기.
15) 동남간의 오기

과 샹고의 ᄇᆡ드리 강을 막아시니 그 수를 아지 못ᄒᆞᆯ너라. 화각이 믈 가온ᄃᆡ 소사시니 증븍소ᄅᆡ 밤이 ᄉᆡ고 등쵹을 셋 식 넷 식 ᄃᆞ라시니 ᄉᆞ월 초팔일 관등이 엇디 이러ᄒᆞ리오. ᄌᆡ화의 풍쇽흠과 인물의 번셩ᄒᆞ믄 본바 처음이오 좌우의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호샤을 비길ᄃᆡ 업더라. 호송ᄒᆞᄂᆞᆫ ᄉᆞ쟈 왕감과 진번이 몬져 ᄇᆡ의 ᄂᆞ려 니로ᄃᆡ 나ᄂᆞᆫ 즉금 ᄐᆡ만부의 문부 드리라 가니 아딕 기ᄃᆞ리라 ᄒᆞ고 가더니 밤ᄉᆡᆫ 후 진번이 도라와 ᄇᆡ을 다히며 가자 ᄒᆞ거ᄂᆞᆯ 핑호부 션인을 니별ᄒᆞ고 오리ᄂᆞᆫ 가니 이ᄂᆞᆫ ᄐᆡ만부 북문 밧기라.(「표해록」)

방익이 말하기를, “두 척의 큰 배에 나누어 타고 서남[17]으로 향하여 이틀 만에 대만부의 북문 밖에서 하륙하였는데, 번화하고 장려하여 길 양옆에 누대가 늘어서 있고 밤에는 유리등을 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였습니다.(「서이방익사」)

그렇다면 이방익 등이 도착한 섬 그리고 항구는 어디인가? 동남간을 향하여 갔으니 타이페이(臺北)일 리는 없다. 1885년 이전에는 대만부의 성도(省都)가 지금의 타이난(臺南)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방익은 타이난에 상륙했음이 분명하다. 대만은 유구한 중국역사와 드넓은 통치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 16세기 들어서야 일본을 왕래하는 영국·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 상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 선박은 대만해협을 지나가는 중 대만섬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섬(美麗島)이라는 뜻의 포모사(Formosa)라고 칭했다.

그때까지 대만에는 문명화되지 않은 남방계 종족이 살고 있었다. 필리핀에 동인도회사를 차리고 동방경영에 나선 네덜란드는 1624년 대만에 상륙하여 자국 영토로 만들었다. 그들이 처음에 발을 디딘

16) 본문과 「표해가」에서는 팽호도에서 대만까지 5일만에 당도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방익은 정조 앞에서 그리고 박지원에게는 2일 만에 대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승정원일기』 및 「서이방익사」) 팽호도에서 대만 서안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20km이니 2일이 걸린 것이 맞을 것이다.

17) 동남의 오기

곳은 녹이문(鹿耳門)과 안평진(安平鎭)을 끼고 있는 대원항이었다. 그들은 활꼴의 넓고 우묵한 만에 제방을 쌓고 모래와 진벌이 있는 얕은 지역을 육지로 만들어 시가지와 농토로 만들었다. 완성된 대원항에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 거점으로 그리고 중개무역의 기지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네덜란드인이 만든 항구는 내항이 넓고 둥글며 바다와 연결된 입구는 호리병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항구를 대원항(大圓港)이라 부르는데 이는 대만(臺灣)의 어원이 되었다(주완요 지음, 손준식, 신미정 옮김, 2003: 64-68). 그들은 북쪽 곳 녹이문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높은 둔덕을 만들어 요새화하고 포대를 설치하고 유럽식 성을 쌓았다. 질란디아 성(Zeelandia Fort)이다. 현재 이 성은 안평진성 또는 안평고보(安平古堡)라 불리는데 성채와 시가가 분리되어 있는 유럽식 성으로 주민이 성 안에 거주하는 중국과 한국의 성과는 다르다.

네덜란드가 대만에서 영토를 늘려가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정성공(鄭成功)이 대함대를 앞세워 밀고 들어왔다. 정성공은 17세기 청나라가 대부분의 중국을 차지하자 복건성 백성들을 동원하여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명나라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당초에는 세력이 크게 번창했는데 급기야 청나라에 밀려 대만행을 결정한다. 1661년 정성공은 400척의 군함과 2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녹이문으로 밀고 들어왔고 녹이문을 간단히 제압한 정성공은 대원항을 건너 질란디아 요새를 공격한다. 2,000명의 병사로 항거하던 네덜란드 총독 코에트는 프로방시아 성(적감성)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대만을 접수한 정성공은 더욱 문호를 개방하여 패전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영국 등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정성공을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천주와 장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대만에 상주하여 대만은 한인(漢人)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정성공의 세력은 아들 정경(鄭經) 그리고 손자까지 이어지다가 1683년 청나라에 항복한다. 1685년 이후 청나라는 해금정

책을 해제하고 복건·광동·영파 등의 항구를 개방하는데 이에 편승하여 대만은 날로 번창한다. 천주와 장주의 농사꾼들은 대만으로 몰려들어와 호밋자루를 내던지고 장사꾼으로 탈바꿈했고 더러는 원주민인 평포족의 땅을 사들여 개간에 힘쓴다(湯錦台, 2011: 163-188). 이렇듯 대항해시대를 맞아 대만이 흥청거리고 있었을 때 이방익이 나타난 것이다.

박지원은 대만의 여러 지역을 논하는 가운데 녹이문과 안평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녹이문은 대만 서쪽 30리에 있는데 그 형상이 사슴의 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양쪽 해안에 모두 포대를 쌓아 놓았고 바닷물이 해협 사이로 흘러 구불구불 휘돌아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해옹굴(海翁窟)이 있는데 평소에는 뜬 모래가 많고 물이 얕으나, 바람이 세게 불면 깊이가 돌변하여 가장 험한 곳이 됩니다. 녹이문 안으로 들어가면 수세가 약해지고 넓은 곳이 나와 천 척의 배를 정박해 둘 만한 곳이 있으니 곧 대원항이라는 곳입니다. …안평진성은 일곤신(一崑身) 위에 있는데, 곤신이란 번어로 모래제방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만가도두(灣街渡頭)에 닿고 서쪽의 모래언덕은 대해에 닿으며, 남쪽으로는 이곤신에 이릅니다. 북쪽에는 해문이 있는데 원래 홍모(네덜란드인)의 협판선(서양식 범선)이 드나들던 곳입니다.(「서이방익사」)

네덜란드는 제1곤신에 큰 언덕을 쌓아 높은 진지를, 동쪽에는 시가지를 형성해 상가와 주택지 그리고 농토를, 북쪽의 녹이문과의 사이에 큰 항구를 만들어 어선과 무역선이 정박하도록 했다. 이방익은 이를 일러 '수구 좌우의 넓은 선창에 단청을 칠한 고깃배와 장사꾼들의 배들이 강에 꽉 들어찼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방익이 당도했다고 추정되는 녹이문을 찾았다. 이방익의 글에는 녹이문이라는 표현이 없고, 박지원은 녹이문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방익 등이 상륙했다는 언급은 없다. 필자가 녹이문을 이방익

이 당도한 곳이라고 비정하는 이유는 정성공이 네덜란드인을 공격할 때 이곳으로 진주했으며 청나라 또한 정성공 정부를 칠 때 이곳에 첫발을 디뎠으며 중국남부의 한인들이 이곳을 거쳐 대만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사진 3] 대원항

이방익 일행은 심문을 받기 위하여 상산병부로 불려 가는데 그 정경은 다음과 같다.

> 도총 병부ᄉᆞ쟈 와 ᄀᆞᆯ오ᄃᆡ 우리 삼 대인이 여등을 샹ᄉᆞᄒᆞ랴 부른다 ᄒᆞ거ᄂᆞᆯ 쥭님을 디나 먼니 ᄇᆞ라보니 ᄇᆡᆨ사댱 광야의 큰 아문이 이시되 문밧긔 긔ᄃᆡ을 놉히 셰우고 긔에 ᄡᅥ시ᄃᆡ 샹산졔 즉 병부총수 긔라 ᄒᆞ엿고 쳔병만마 ᄎᆞ례로 버러시니 검극이 ᄉᆞᆷ엄ᄒᆞ고 일셩방포의 졔쟝이 교위ᄅᆞᆯ 놉히 노코 군졸을 호령ᄒᆞ니 군용이 엄슉ᄒᆞ더라.… ᄒᆞᆫ 간 교위 우ᄒᆡ 홍젼과 홍문단을 걸치고 네 관쟝이 안ᄌᆞ시니 좌우 졔장이 ᄎᆞ례로 버러 군법을 다ᄉᆞ리니 위엄이 심히 엄졍ᄒᆞ더라.(「표해록」)



[사진 4] 안평고보

필자는 이방익이 방문한 '상산병부'를 안평진성으로 비정한다. 「표해록」에 이방익 일행이 '팽호부 선원들과 이별하고 5리쯤 가니 대만부 북문 밖'이었고 거기서 저자거리를 지나 5리를 가니 관부가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녹이문과 안평진 사이에 약 2km의 다리가 놓였고 안평진성 북문이라고 추정되는 북쪽 강변에서 안평고보까지는 2km가 됨을 우리는 택시 미터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해록」에 의하면 이방익은 대만의 군사령부인 상산병부(안평진성)를 방문했을 때 대만의 최고지도자들인 안찰사, 대만 부윤, 무수제독, 대만 현령 등의 영접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겸선전관을 지낸 일과 정3품의 통정대부 충장위장의 현직에 있는 장군임을 당당히 밝힌다.

Ⅳ. 송환노정의 지리적 고증

1. 하문의 주자서원 위치

대만(대남)을 출발한 이방익 일행은 열흘 걸려 천진(금문도)을 거쳐 하문에 당도했는데 때는 1797년 1월 4일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 해안에서 멀지 않은 주자서원에 안내되었는데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다중이 이용하는 서원이나 사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丁巳正月初四日에 廈門府에 드러가니
紫陽書院 네 글자를 黃金으로 메웟는대
甲紗帳 둘너치고 左右翼廊 奢麗하다
내 비록 區區하나 禮儀之國 사람이다
이 書院 지나가며 엇지 瞻拜 아니리오
拜禮를 畢한 後에 殿밧게 나와보니
數百 儒生 갈나안져 酒饌으로 推讓한다
(『표해가』)

뎡ᄉᆞ년 졍월 초 ᄉᆞ일의 하문부의 니ᄅᆞ니 ᄃᆡ산이 잇고 뫼 앒히 대찰 이시니 일홈은 향불ᄉᆞ라 ᄒᆞ더라. 졀 앒히 반셕이 잇고 그 아ᄅᆡ 돌을 파 암ᄌᆞ을 짓고 돌 우히 큰다리 십장이나 남고 몸픠[18] 세 아름이나

ᄒᆞᆫ 돌이 셧ᄂᆞᆫᄃᆡ 반셕 우희 큰 솔이 나시니 이ᄂᆞᆫ 쥬ᄌᆞ셔원이니 화샹을 뫼셧다 ᄒᆞ거ᄂᆞᆯ 텸빅ᄒᆞ믈 쳥ᄒᆞ니 ᄉᆞ쟈 듯고 변ᄉᆡᆨ 왈 네 만니 타국 사ᄅᆞᆷ으로셔 엇디 쥬ᄌᆞ를 아ᄂᆞ다? 내 또ᄒᆞᆫ 졍ᄉᆡᆨ 답왈 죠션은 본ᄃᆡ 녜의를 슝샹ᄒᆞᄂᆞᆫ디라 삼쳑동ᄌᆞ라도 삼쳐를 쳔하사ᄅᆞᆷ이 셩인이신줄 모로리오. ᄉᆞ쟤 듯고 추연이 다시 안즈며 왈 됴션이 녜의지국이라 ᄒᆞ던 말이 금일이야 쾌히 알괘라 ᄒᆞ더라. ᄉᆞ쟤 인도ᄒᆞ여 ᄌᆞ양셔원의 드러갈ᄉᆡ 큰문 밧긔 좌우의 긔화뇩초을 난만이 심으고 현관을 ᄌᆞ양셔원이라 네 ᄌᆞ을 금으로 메웟더라. 동편 져근 믄으로 드러가셔 보니 좌우익낭과 졍뎐이 아국 셩균관과 ᄀᆞᆺ트나 광량쇄려ᄒᆞ믄 더 형용티 못ᄒᆞᆯ너라. 갑사비단쟝을 졍뎐 ᄉᆞ면의 두루고 뎐 압히 사ᄅᆞᆷ 세 빵을 뮌드러 세우고 옷슨 다 금슈로 ᄒᆞ여 입히고 향촉과 셔책을 밧드러 세웟더라. 텸배ᄒᆞᆯ새 유ᄉᆡ드리 좌우로 ᄂᆞᆫ화 뎐 밧긔 서셔 녜수[19]를 니르고 인ᄒᆞ여 분향ᄒᆞ니 향긔 촉비[20]ᄒᆞ더라. ᄇᆡ례 필의 군샹을 텸시ᄒᆞ니 엄졍ᄒᆞᆫ 긔운이 사ᄅᆞᆷ의게 쏘일 ᄲᅮᆫ 아녀 므ᄉᆞᆷ 교화의 말ᄉᆞᆷ을 ᄒᆞ시ᄂᆞᆫᄃᆞᆺ 미우[21]간에 거문 ᄉᆞ마귀 잇더라. 녜 필의 졍뎐 밧긔 나오니 수ᄇᆡᆨ 유싱이 갈나셔셔 일시의 읍ᄒᆞ고 당의 몬져 오르라 ᄒᆞ거ᄂᆞᆯ 답녜 후 주ᄀᆡᆨ지녜로 ᄉᆞ양ᄒᆞᆫ즉 유싱이 또 ᄉᆞ양ᄒᆞ다가, 오른 후 차를 가져 몬져 권ᄒᆞ고 즉시 쥬찬을 나오니 음식이 쇄락ᄒᆞ고 유싱의 녜뫼 공슌ᄒᆞ더라. 하문부 관원 구공이 쥬찬을 가지고 와 담화ᄒᆞ니 이ᄂᆞᆫ 본 바 처음일너라. 또 본관이 쥬인된 녜를 베풀더라.(「표해록」)

배를 탄 지 10일 만에 하문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자양서원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서원 안에 주자의 화상이 있기에 들어가 경배하였더니 서원에 거주하는 유생 수백인이 모두 나와서 보고는 매우 정답고 친밀한 뜻을 보였습니다. (登舟十日到廈門下陸 止舍於紫陽書院 院中有朱子畵像 入去祗拜居接儒生數百人 皆出來見之頗示款曲之意) (『승정원일기』)

18) 몸 둘레
19) 예수(禮數): 주인과 객이 만나 서로 인사함.
20) 촉비(觸鼻): 냄새가 코를 찌름.
21) 미우(眉宇): 이마와 눈썹 언저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원에 당도한 이방익은 문사는 아니지만 동방예의지국 사람으로 체면을 생각하여 서원에 배례할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이방익과 동행한 사자(使者)가 변색을 하며 만류하고 나섰다.

"귀공이 만리타국 사람으로서 어찌 주자를 아십니까?"

방익이 정색하고 답하기를

"조선은 본디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라 조선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주자가 성인이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가 듣고 감탄하여 마지않으며 말하기를

"조선이 예의지국이라 하던 말을 금일에야 쾌히 알겠구나."

하였다.

이방익이 참배할 때 유사들이 좌우로 나눠 서서 예를 취하고, 배례를 마치고 정전 밖으로 나오니 수백 유생이 갈라서서 일제히 절하면서 당에 먼저 오르라고 권했다. 이방익이 마주 절하고 주객의 예를 들어 사양하였으나 유생들이 또 사양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익이 먼저 당에 오르니 유생들의 예모가 공순하였다. 이방익은 여러 유생들과 주찬을 나누며 담화하니 이는 무관인 이방익이 조국 조선에서도 언감생심 겪어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의 유학자들은 주자의 학덕과 학풍이 조선까지도 널리 퍼져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주자에게 배례한 이방익을 예를 다하여 모셨고 하문부의 주쉬(主倅-관부장) 표공(表公)[22]이 연이틀 찾아와 대접했다. 이방익의 소문은 일파만파 양자강 이남의 강남 관계와 학계에 퍼져나갔다.

2018년 7월 6일, 우리는 이방익이 하문에 상륙하자마자 방문했다는 주자서원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주자서원은 주자의 호를 따서 자양서원(紫陽書院)이라고도 부른다. 주자(1130-1200)는 남송의 유학자로 본명은 주희(朱熹)이고 호는 자양(紫陽) 또는 회암(晦庵)

22) 「표해록」에서는 하문부 관원 구공을 언급하고 있으나 『승정원일기』에서는 주쉬 표공이 대접했다고 함.

이다. 그는 유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완성시켰다. 그의 학설은 송·명·청 시대 유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사상과 학풍은 후세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공자와 맹자 다음으로 숭배되었고, 풍부한 독서와 세밀한 분석을 중시하는 그의 학풍은 후세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주자의 사상체계는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퇴계와 율곡이라는 대학자의 사상체계로 이어졌다. 주희는 18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동안현 주부로 첫 관직을 시작하였다. 동안현의 자양서원은 주자가 처음으로 세운 서원으로 그 의미가 각별히 크다. 박지원은 「서이방익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주자가 동안현의 주부(主簿)로 있을 때에 고사헌(高士軒)을 지어 여러 유생과 더불어 그곳에서 강습한 일이 있는데 지금의 서원이 서 있는 자리는 아마도 그 옛터인 듯합니다. 또 원나라 지정(至正-원나라 순제의 연호1341-1367) 연간에 고을 수령 공공준(孔公俊)이 서원을 세우고 청하여 대동서원(大同書院)이란 액호를 하사받았는데 바로 이 서원을 가리킵니다.(「서이방익사」)

우리는 하문시 중심가에서 출발하여 다리를 건너 서북쪽으로 한 시간여 달렸다. 오전산 기슭에 웅장한 범천사(梵天寺)가 보인다. 범천사 옆길을 따라 높은 언덕으로 오르니 <자양서원>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그러나 이 서원이 공공준이 세운 대동서원을 중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익이 방문한 서원이 아님을 필자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필자가 의구심을 갖는 첫째는 이 서원이 큰 산 기슭에 있긴 한데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어 이방익이 거기까지 갈 리가 없고 『승정원일기』에는 이방익이 '하문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자양서원에 머물렀다'고 했으며, 둘째 「표해록」에서 자양서원이 절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곳의 서원은 절 뒤에 있다는 점, 셋째 이방익은 서원 뒤에 향불사라는 절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원 앞에 다른

이름의 범천사가 있는 점이었다. 우리의 안내자 왕이펀(王益芬) 선생이 즉시 전문가를 수소문했다. 동안구의 사(寺)·묘(廟)·궁(宮)을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 임홍도(林宏途) 선생이 달려왔다. 필자가 「표해록」의 기록을 설명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그 또한 2002년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서원은 박지원이 말한 <대동서원> 옛터에 지어진 것일 수는 있으나 이방익이 방문한 서원은 아닌 것 같다고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자서원은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동안구 남쪽의 상안구로 달렸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하문에 다른 자양서원이나 향불사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향산암이 검색되어 막연하지만 그곳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향산암을 찾았는데 남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북쪽으로는 큰 산이 뻗어있었다. 놀랍게도 향산암 앞의 허름한 상점 위에 낡은 패방(牌坊)이 걸려 있는데 <徽國文公祀(휘국문공사)>라는 금박의 글씨가 뚜렷이 보였다. 휘국과 문공은 더불어 주자에게 내려진 시호(諡號)다.



[사진 5] 휘국문공사(주자서원)

절 앞 광장과 연못은 현재 유원지로 활용되어 있는데 패방 앞에는 이방익이 말한 것처럼 작은 연못 위에 돌다리가 있으며 몇 아름의 큰 돌이 우뚝 서있는데 이는 '절 앞에 반석이 있고 그 아래 돌을 파 암자를 짓고 돌 위에 큰 다리가 십장이나 넘고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돌이 섰'다는 「표해록」의 표현과 거의 일치한다. 넓은 평원 아래로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 저편에 금문도와 대등도가 보인다. 이방익 일행이 금문도를 거쳐 해안에 당도하여 이곳 자양서원을 찾은 것임을 알 수 있다.

7월 13일 복건성 지방사 편찬위원회와의 회합에서 필자는 이방익이 방문했던 자양서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는데 위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바 2시간여의 회합이 끝날 무렵 사람을 시켜 현지를 방문하게 하였음을 알려왔다. 그날 외사판공실이 주최한 만찬에서 리홍(李宏) 부주임은 이방익이 방문했던 서원을 재건축하고 재건축하는 김에 이방익 조상(彫像)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고려인의 흔적

주자서원을 뒤로 하고 교자를 타고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 동안현성에 이른 이방익 일행은 봉성현(지금의 안계)을 거쳐 진강을 따라 천주로 향했는데 길가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와 환호하며 자리를 뜨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방익 등이 입은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옷을 취하여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감격에 겨워하였다.

> 우리를 보러온 사람들이 앞 다투어 사탕수수를 던져 주었으며, 어떤 이는 머뭇거리고 아쉬워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고, 어떤 이는 우리의 의복을 입어보고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옷을 안고 돌아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돌아와서는 '소중하게 감상하면서 가족들과 돌려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서이방익사」)

> 우리의 관을 보고 ᄉᆞ모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 잇더니 ᄀᆞ만이 와 가져가거ᄂᆞᆯ 그 연고을 무ᄅᆞ니 답왈 너희 나라의 관이 긔이ᄒᆞᄆᆡ 가져가 구경코져 ᄒᆞ노라 ᄒᆞ니 이ᄂᆞᆫ 의심컨ᄃᆡ ᄃᆡ명을 ᄉᆡᆼ각ᄒᆞ고 귀히 너겨 ᄃᆞ토와 경모ᄒᆞᄂᆞᆫ ᄯᅳᆺ질러라.(「표해록」)

이방익은 이들의 행태를 멸망한 명나라를 그리워하여 한 행동으로 보고 있지만[23] 박지원은 그들이 신라 때의 신라현에 사는 사람들의

후예로 고국을 그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는 강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관을 만져보고 눈물을 흘렸다니 춘추대의(春秋大義)'[24] 즉 명나라에 대한 의리로 해석하여 이방익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방익 등이 어떤 옷을 입었기에 그들이 입어보고 감격하는가? 이방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농부 또는 어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격할 이유가 없을 것이지만 이방익의 의복은 정조가 의관이라 했듯이 관복 또는 군복일 가능성이 높다. 이방익은 어머니 묘소를 찾을 때 관복을 착용했으며 표류할 때도 관복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직을 얻은 자식이 조상의 묘를 찾을 때 관복을 입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둘째 팽호도에 표착했을 때 이방익을 따로 불러 예우를 한 점, 셋째 이방익 장군이 대만에서 군사령부를 방문하면서 군용(軍容)을 정제(整齊)하였다고 함은 군복을 입었다는 것이고 넷째 이방익이 허술한 바지저고리를 입었거나 청나라 군복을 입었다면 군중이 환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방익이 거쳤던 남안현에 신라촌, 고려착(高麗厝-고려 마을)이, 근처의 영춘현(永春縣)에는 고려산(高麗山), 고려촌, 고려묘의 유적이 있음(葉恩典, 2007: 231-245)을 감안할 때 필자는 이방익이 이 근처를 지났고 이방익의 의복에 관심을 가진 그들은 신라·고려인의 후예일 것이란 점에서 박지원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신라시대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방익이 살던 시대로부터 500년 전까지는 고려와 송나라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주의 옛 거리를 걸었는데 고려인의 마을 고려항(高麗巷)이 복건의 발음으로 규하항(奎霞巷)의 이름으로 그 거리에 잔존하여 팻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재래시장에 들러 고려에서 전래한 고려채(高麗菜)를 발견했는데 양배추와 모양이 비슷했다. 천주시외사판공

23) 이방익은 자신의 옷을 입어보던 사람들이 신라·고려인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 같다. 여기에서 박지원의 혜안이 돋보인다.
24) 『일성록』, 1797년 윤6월 22일.

실 주최 만찬에서는 고려채로 만든 요리접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 이방익이 본 식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줄기는 옥수수 같고 열매는 없고 뿌리만 있는데 모양이 감자 같고 그 뿌리를 다려내면 맛이 달아 생강과 더불어 정과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신라에서 전래한 신라등(新羅藤) 또는 신라갈(新羅葛)인 듯하다. 『팔민통지(八閩通誌)』에 의하면 '신라갈은 일명 토과(土瓜)라고 하는데 뿌리는 알밴 칡뿌리 같고 큰 것은 사발만 하고 작은 것은 주먹만 한데 색깔은 청백색이면 맛이 달다'했기 때문이다.

3. 천하제일의 천주대교

이방익은 안계에서 진강(晉江)을 따라 남안현을 거쳐 천주 남문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안평교(安平橋)를 건넌 것이 분명하다. 이 교량은 남송 때(1151년) 군수 조용금(趙令衿)에 의하여 완공되었는데,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렸으며 바다를 건너는 돌다리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天下無橋長此橋)로 전장 2,255m 즉 5리를 약간 넘는데 그래서 오리교(五里橋)라고도 한다. 다리에는 석판을 깔았는데 하나의 길이가 10m정도이고 긴 것은 20m나 되며 교폭은 4m 가까이 된다(黃水看, 2005: 83-84). 이방익은 이 다리를 걸으면서 또 길게 드리운 다리를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한다.

돌다리 五十間에 무지개문 몃치런가
다리 우에 저자 안고 다리 아래 行船한다
婦女들의 凝粧盛服 畵閣에 隱映하니
鸚鵡도 戱弄하며 或彈或歌하는고나(「표해가」)

가는길을 ᄇᆞ라보니 돌다리가 오십니[25]ᄂᆞᆫ 되ᄂᆞᆫᄃᆡ 다리 우히 무지게 세 문식 몃친줄 모로ᄂᆞ대 다리 가온대 무쇠은쟝을 박아시며 난간을

25) 50리는 50간을 지칭하거나 5리의 오기.

ᄒᆞ여시니 텬하의 너른 셕교러라. 좌우의 져지를 버려시니 너르기 언만 줄 모르고 샹고의 오ᄉᆡᆨ 치션을 다리 아ᄅᆡ로 왕ᄂᆡ연쇽ᄒᆞ여 그 수를 모를너라. 또 문이 십니의 돌을 ᄭᅡ라 큰 길을 무엇ᄂᆞ데 셩ᄂᆡ의 관원드리 혹 ᄆᆞᆯ도 타며 교ᄌᆞ도 타며 날마다 ᄌᆞᄉᆞ문의 ᄉᆞ관ᄒᆞ려 왕ᄂᆡᄒᆞ며 부녀들은 웅장셩복으로 화각 우히서 혹 좌 혹 닙ᄒᆞ여 탄금도 ᄒᆞ며 앵무도 희롱ᄒᆞ니 긔이ᄒᆞᆫ ᄐᆡ도 비길데 업고 곡ᄉᆡᆨ 시른 수레와 비단 시른 술위 너른길의 막아시니 ᄌᆡ화ᄂᆞᆫ 풍쵹ᄒᆞ고 인믈도 번셩ᄒᆞ다. 강남이 번화탄 말이 이를 두고 니로미라.(「표해록」)

이방익이 안평교를 건너 남문으로 향하여 가면서 바라본 정경을 정리해 보자. 남문으로 뻗은 다리에는 '곡식 실은 수레와 비단 실은 수레가 넓은 길을 꽉 채웠고' 다리 아래로는 물화를 실은 채선들이 수도 없이 왕래한다. 다리 위에는 관원들이 말을 타거나 교자에 앉아 성내로 드나든다. 다리 중간에 넓게 만든 광장에는 저자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다리 위에는 다섯 좌의 정자(화각)가 들어앉아 있는데 응장성복(凝裝盛服)으로 화려하게 꾸민 여인들이 앉거나 서서 혹은 노래하고 혹은 탄금도 하면서 미모와 유희를 뽐내고 있다.



[사진 6] 안평교

이방익이 남문을 거쳐 성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방익 등을 보러온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방익은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라고 기억한다.

7월 9일, 우리는 북문을 지나 낙양교(洛陽橋)를 찾았다. 낙양교는 천주 북쪽에 있는 낙양강의 바다와 맞닿아 있는 강어귀에 놓아진 다리로 인마가 복주로 가자면, 그리고 복주나 흥화부에서 천주로 들어오자면 반드시 이 다리를 거쳐야 한다. 이방익은 천주 북문을 나서서

낙양교를 건넜을 것이다. 복건성 포정사(布政司)에서 송환조치의 최종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이다. 천주에서 복주까지는 해안을 따라 400리 길이다. 박지원은 이 다리를 대홍교(大虹橋) 또는 낙양교(洛陽橋)라고 부르면서 낙양강의 내력을 들려준다.

> 당나라 선종(宣宗)이 미행을 나와 산천의 승경을 구경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경탄하여 하는 말이 '우리 낙양과 닮았구나' 했기 때문에 이 강을 낙양강이라 부르게 되었고 따라서 다리를 낙양교라 이름한 것이고 만안교(萬安橋)라고도 합니다.(「서이방익사」)

낙양교는 북송 인종 때(1053-1059) 7년에 걸쳐 건설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다. 길이가 1,200m, 폭이 5m로 중간에 5개의 석탑, 7개의 정자, 28개의 돌사자가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800m쯤 된다. 10m가 넘는 장방형의 상판 여러 개를 세로로 줄을 대어 깔았고 뗏목 모양의 받침대가 받치고 있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 돌 받침대에는 굴을 양식하여 돌이 갈라지거나 틈이 생기는 것을 막았다고 하며 석판은 부력을 이용하여 운반한 후 들어 올렸다. 다리가 워낙 튼튼하여 명나라 때 규모 8의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상판이 떨어지거나 거의 붕괴되지 않았다(黃水看, 2005: 79-80). 이 다리는 군수 채양(蔡襄)이 건설했기 때문에 입구에 그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사전 정보의 부족으로 안평교를 볼 기회를 놓쳤다. 이방익이 「표해가」 및 「표해록」에 기록한 다리를 박지원이 언급한 낙양교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문헌들과 천주 옛 지도를 참조하여 이방익의 노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4. 복건역로(福建驛路)

이방익 일행은 복건성 성도가 있는 복주에서 황제의 재가를 기다

리며 40일을 머물렀다.[26] 3월 12일 드디어 그들은 황제가 임명한 호송관 마승길을 따라 복건성 서문을 나섰다.

이방익은 「표해록」, 「표해가」 등에서 자신이 경유한 지명을 표기했으나 그 도정이 명확하지 않아 더듬어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거쳐 가면서 보고 느낀 풍물은 중국 강남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민속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거쳤던 길을 다 섭렵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역사지도집(청시기)』(譚其驤, 1987), 『복건성역사지도집』(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 2004), 『중국고금지명대사전』(臧勵龢 等編, 2015) 을 참조하여 조선의 장군 이방익이 복주에서 출발하여 절강성에 이른 길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방익이 기술한 지명을 살펴보면 『복건성역사지도집』의 <복건역로>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도로를 역로라 한 것으로 볼 때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잘 닦여진 길이었다. 이 길을 통하여 북쪽의 군사가 민(閩)으로 쳐들어왔고 북방의 문화가 남방으로 전파되었다. 민 지역의 문사들이 과거보러 황성으로 갈 때 이 길을 택했고 해외의 진귀한 보물들과 남중국의 특산물이 이 길을 통하여 중원으로 보내졌다. 귀국길에 오른 마르코 폴로는 이 역로를 통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천주에서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복주에서 선하령으로 가는 역로에는 하루거리로 역참(驛站)이 있어 말을 쉬어가기도 하고 바꿔 탈 말도 준비되어 있었다. 또 숙박시설이 완비되고 음식도 차려져 있었다. 특히 이방익의 경우 황제의 분부를 받고 행차하는 행렬이고 인원수도 이방익 일행에다 호송원과 짐꾼을 합하면 수십 명의 대부대일 것이므로 각 역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렸을 것이고 각 역은 푸짐한 주찬을 준비했을 것이다.

길을 가면서 주위를 돌아보니 밭에 심었던 남초(南草, 담배)는 이미 수확이 끝났고 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조는 누런 이삭을 늘어뜨

26) 우리는 이방익 일행이 40일간 묵었다는 법해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945년에 건립된 이 천년사찰은 2011년에 불에 타서 뼈대만 남아 있다.

렸으며 또 유자는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육로로 40리를 지나 황진교에 이르니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는데 산천의 경관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은 앞 다투어 주찬을 내어 대접하면서 은근한 뜻으로 위로해 마지않는다. 황진교 나루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호송선에 몸을 싣고 민강(閩江)을 거슬러 올라간다. 민강은 무이산맥과 선하령산맥을 발원지로 하여 남평(南平)을 거쳐 복주로 흐르는 강이다. 황진교를 떠난 일행은 민청현, 북청현을 지나 140리 수로를 항해하여 수구진에 이른다. 이 세 고을에는 강변의 밭이 모래흙으로 되어 있는데 생강의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민강(閩薑)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익은 생강의 뿌리가 맷방석만 하다고 표현한다.



[사진 7] 사다리논

수구진에서부터 육로를 통하여 50리를 가니 황전역(黃田驛)에 이른다. 복주를 떠난 지 6일 만이다. 역내로 들어가니 미리 연락을 받은 터라 주찬을 푸짐하게 차렸다. 하룻밤을 묵고 40리쯤 가서 다리를 건너면 연평부(延平府)의 초입인 우계구(尤溪口)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남평(南平)까지는 100리길로 계곡이거나 험준한 고갯길이다. 이방익이 바라보니 높은 산들의 비탈을 개간하여 층층으로 사다리논(梯田)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신기한 것은 높은 논에까지 수기(水機)라는 것을 만들어 물을 대고 있었다.[27]

청추[28]와 회화남기 셩님[29]ᄒᆞ엿고 강남이 사ᄅᆞᆷ은 만코 젼답은

27) 필자 등 탐방단은 남평시지방사편집위원들과 더불어 남평에서 복주로 연결된 구도로(이방익이 지나온 역로)를 2시간 반 동안 달려(후진) 우계구에 찾아가서 산비탈에 형성된 사다리논을 관찰했다.

28) 청초(淸楚): 가시나무

젹으니 뫼 ᄉᆞ면을 둘너 층층이 논을 민ᄃᆞ러시니 고이ᄒᆞ여 무른즉 답왈 아모리 놉하도 강이 머지 아니ᄒᆞ면 슈긔[30]로 믈을 ᄃᆞ히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슈긔ᄅᆞᆯ 무른즉 믈 다히는 ᄌᆞ이라 ᄒᆞ니 그 법을 알면 아국의 어이 믁은 짜히 이시리오. 실졍 배호고 시브ᄃᆡ ᄒᆞᆯ 일 업더라.(「표해록」)

이방익은 지나는 길에서 장묘 및 장례 장면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장례문화이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아 민속학의 측면에서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길ᄀᆞ의 무덤이 잇스니 회로 ᄡᅡ 봉분 압히 숙셕[31]을 층층이 노코 양마셕과 혼유셕과 쟝군셕을 좌우의 ᄒᆞᆫ 빵식 셰웟고 신조비도 셰우고 묘각을 졍쇄이 지어시니 이는 벼슬ᄒᆞ는 사ᄅᆞᆷ의 무덤이 아니라 빅셩이라도 직물이 풍족ᄒᆞ면 이리 ᄒᆞᆫ다 ᄒᆞ더라.(「표해록」)

黃津橋 지나와서 水軍府로 드러오니
泰山갓치 오는거슨 멀리 보니 그 무엇고
數百人이 메엿는대 불근 줄로 ᄊᆞ으럿다
돗대가튼 銘旌대는 龍頭鳳頭 燦爛하다
帳 안에서 哭聲이오 가진 三絃압헤섯다
無數한 별 輦獨轎 喪家婢子 탓다 하네
行喪하는 저 擧動은 瞻視가 고이하다(「표해가」)

남평은 두 강줄기의 합수처로 강이 넓고 깊어 선박운행도 활발하고 역로가 남북으로 잘 닦여있어 육상교통도 발달해 있다. 북쪽지방에서 남쪽의 민(閩-복건)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나 남쪽에서 북쪽의 무이산맥이나 선하령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거친

29) 성림(成林):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룸.
30) 수기(水機): 물을 푸는 기계.
31) 숙석(熟石): 인공으로 다듬은 돌

다. 남평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40리를 가면 대횡역(大橫驛)이 나오는데 건녕부와 경계지점이다. 대횡역을 떠나 태왕관, 태청관을 지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천이 수려하여 그림 속으로 가는 것 같았고 무이산의 아홉 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고 이방익은 감격해한다.

일행은 건안(지금의 건구시建甌市)의 서문인 통선문(通仙門)[32]에 말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 이방익은 성루에 올라 바라본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엽방관과 건안현 영두분ᄉᆞ의 니ᄅᆞ러 그 압히 긴 강이 잇ᄂᆞᆫᄃᆡ 아홉 간 셕교 잇고 셕교아ᄅᆡ로 샹고션이 왕ᄂᆡᄒᆞᄂᆞᆫ디라. 믈가의 누ᄃᆡ가 믈가마다 층층ᄒᆞ여 단쳥이 죠요ᄒᆞ고 인가 즐비홈과 산쳔의 슈려ᄒᆞ믄 쳔하의 읏듬일너라.(「표해록」)

이방익은 아름다운 단청으로 꾸민 통선문 성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본다. 동쪽으로는 인가가 즐비하고 성을 넘어 수려한 산들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긴 강이 흐르는데 아홉 간의 긴 다리가 드리워져 있고 다리 아래로 화물 실은 배들이 지나간다. 일행은 통선문 다락에서 일박하고 말을 재촉하여 엽방역(葉坊驛), 건계역을 지나 건양에 이른다. 건양역에서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북서쪽 길은 무이산 무이정사(武夷精舍)로 가는 길이고 정북방향은 선하령으로 가는 길이다. 일행은 선하령으로 향한다. 그들은 영두역(營頭驛)을 지나 포성현의 인화역(人和驛)에서 여장을 푼다.

3월 12일 복주를 출발한 일행은 뱃길로 6일, 역로로 9일 도합15일 만인 3월 26일에 선하령 초입까지 주파한 것이다. 수구진에서 인화역까지의 역로는 약 300km 거리임을 감안하면 이방익 일행은 마차를 이용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

32) 우리 탐방단은 통선문을 방문했는데 경치가 이방익의 설명과 유사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5. 선하고도

포성을 지나 선하령 등성마루까지는 가파른 고갯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마를 이용할 수 없어 이방익 일행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메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노끈으로 허리를 매어 서로의 몸을 연결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다. 그때의 일을 이방익은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 이십뉵일의 인화관을 디나 셔양녕[33]의 니ᄅᆞ니 녕이 하ᄂᆞᆯ의 다하시니 험악ᄒᆞ여 검각과 다르디 아니터라. 노흐로 허리ᄅᆞᆯ 매고 압흐로 끄을며 뒤흐로 미러 간신이 녕 우해 오르니 졍신이 황홀ᄒᆞ여 몸이 우화ᄒᆞᆫ 듯 ᄒᆞ더라. 녕 우해 뎐이 잇거ᄂᆞᆯ 뎐문의 가니 현판의 보화ᄉᆞ라 ᄒᆞ엿고 ᄉᆞ면의 푸른 대ᄂᆞᆫ 울ᄒᆞᆫ ᄃᆞᆺ ᄒᆞᆫ대 긔이ᄒᆞᆫ 새소래와 이샹ᄒᆞᆫ 즘생이 슈플 사이로 한가히 왕내ᄒᆞ고 인개졀원ᄒᆞ여 진애 밧긔 소사시니 ᄆᆞᄋᆞᆷ이 쇄락ᄒᆞ여 세샹욕심을 돈연이 니즐 ᄃᆞᆺᄒᆞ더라. 즁의 복색이 댱삼은 아니오 아국 도포요 곳갈은 유건 ᄀᆞᆺ치 ᄒᆞ여 써시되 가온대ᄂᆞᆫ 굽고 두가ᄂᆞᆫ 내밀게 ᄒᆞ여 써시니 모양이 고이ᄒᆞ더라. 몬져 읍ᄒᆞ고 나죵 절ᄒᆞᄂᆞᆫ대 극진이 공슌ᄒᆞ고 숑경ᄒᆞᄂᆞᆫ 즁은 엄연 단좌ᄒᆞ여 본 체 아니ᄒᆞ고 향벽 숑경ᄒᆞ니 의연이 득도ᄒᆞᆫ ᄃᆞᆺ ᄒᆞ더라. 녕의 ᄂᆞ려올새 즁들이 뎔문 밧긔 나와 무ᄉᆞ히 가믈 니른 후 술과 소찬을 내여 젼송네로 ᄒᆞ더라.(「표해록」)

우리는 이번에 포성현을 출발점을 잡고자 하였으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이방익의 여로와는 반대로 절강성 쪽 선하령으로 와서 되짚어가기로 했다.

이방익은 선하령 정상에 이르러 보화사(寶華寺)에 들렀는데 승려들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화

33) 선하령(仙霞嶺)의 오기로 보임. 서양령은 고지도 또는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으나 『仙霞古道』(羅德胤, 2016)에 풍령관 주변에 위치한 보화사를 표기하고 있어 서양령은 풍령, 넓은 의미로 선하령으로 비정했다. 후술 문장 참조.

사의 실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첫째 우리는 보화사가 있다는 풍령까지 가지 못했고 둘째 우리가 들른 선하관 등의 학예사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보화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필자는 나중에 문헌을 통해 보화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절은 풍령관 북면 약 50m에 서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초의 건축면적 약 300㎡인 이 사찰은 전당, 중당, 후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식당과 숙소로 쓰는 후당은 문화혁명 때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전관은 관제묘, 중당은 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羅德胤, 2016: 73).

선하령산맥은 강서성·복건성과 절강성의 경계를 따라 남북으로 뻗은 산맥으로 최고봉은 1,413m인데 고도 1,150m의 말안장과 같은 고개를 통하여 복건성과 절강성이 연결되어 있다. 이 고개를 풍령(楓嶺)이라 부르지만 이 험산준령을 넘자면 이령(梨嶺), 풍령, 대간령(大竿嶺), 선하령, 차령(茶嶺), 소간령, 오현령(五縣嶺)을 거치게 되는데 통틀어 선하령 또는 선하6령으로 부르기도 한다(羅德胤, 2016: 11-12). 고갯마루에는 몇 개의 관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통틀어 선하관(仙霞關)으로 부른다. 선하관은 사천의 검각관, 하남의 함곡관, 산서의 안문관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험난한 4대 명관으로 친다. 선하령은 복건의 민강과 절강의 전당강 수계의 관절점이며 분수령이다. 복건성 포성에서부터 선하령을 넘어 절강성 강산시 청호진까지의 125km를 선하령로 또는 선하고도(仙霞古道)라 일컫는데 이 도로는 당나라 말기에 개척한 길이다. 약 125km 선하고도 중에서 현재는 대부분 국도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원상대로 남아있는 곳은 30km정도이다.

선하령산맥은 하도 험준하고 가팔라 당나라말기까지는 사람이 넘나드는 길이 없었던 험산준령이었지만 당나라 희종 때 <황소의 난(875-884)>의 주역이었던 황소(黃巢)가 환관정치와 농민수탈에 저항하여 거병하였을 때 복건과 광주를 손아귀에 넣을 목적으로 2년에 걸쳐 선하고도를 뚫었다.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자 일으킨 황소의

난이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중국의 역사가들은 황소를 의적이라 부르고 있다. 그가 선하령을 넘는 길을 개척한 사건은 중국의 왕조역사, 정치적·군사적 측면, 문화, 경제, 교통과 물류 그리고 인민의 동질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진 8] 선하고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면 남송의 명재상 사호(史浩, 1106-1194)가 1172년에 3600개 돌계단을 깔아 보수하고 5개의 선하관을 지어 요새화하면서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이는 금나라의 남침에 대비하여 출구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남송으로 볼 때 선하령은 군사요충지이며 최후의 보루로 이곳이 뚫리면 복건이 무방비상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1563년 명나라의 척계광(戚繼光) 장군이 이 고개를 넘어 복주로 달려가 왜구를 물리쳤으며, 명나라가 멸망하자 정지룡(鄭之龍)이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 군대를 맞아 싸운 곳이기도 하다. 정지룡이 밀려오는 청군에 항복하자 그 아들 정성공이 남평에서 군사를 정비하여 반청복명의 기치를 들고 청나라에 대항했으나 이미 선하령을 잃은 그는 남으로 밀려 결국 대만으로 밀려났다. 청나라 초기 <삼번의 난>을 일으킨 경정충(耿精忠)이 반군을 이끌고 복건에서 절강으로 짓쳐올 때 선하령을 넘었지만 구주(衢州)에서 궤멸되기도 하였다.

선하고도는 중국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복건의 상인들은 도부(挑夫, 짐꾼)들을 고용하여 강남의 생산물과 외래품을 이 고개를 통하여 강북으로 실어 날랐다. 쌀·콩·죽순·연밥 등의 농산물, 비단·동실유(桐實油)·설탕·종이·물감 등의 가공품, 비단·도자기 등의 특산품 그리고 향료·상아·물소뿔 등의 외래품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해금정책을 일관한 명나라 때에는 천주 등지에 부려지는 외래품

은 선하고도를 이용하거나 멀리 강서성을 거쳐 양자강을 타고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다.

문화적으로 보면 구주에 뿌리내린 공자 남종파(南宗派)의 학유들이 선하고도를 통해 복건성에 유교를 전파했고 특히 북송의 흠종이 금나라에 잡혀간 정강(靖康)의 난(1126-1127) 때 많은 선비들이 이 고개를 넘어 복건성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복건의 선비들이 과거보러 이 고개를 넘고 전당강을 거쳐 경항대운하를 지나 북경으로 향했다. 따라서 명·청 시대에는 복건성의 진사 합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북쪽의 시인묵객들이 이 고개를 넘어 민강에 배를 띄웠고 남쪽의 유학자들이 학문의 교유를 위해 이 고개를 넘어 전당강에서 배를 탔다. 주희는 평생 동안 30번이나 선하령을 넘어 구주의 남종공묘를 순례했고(林佛民, 2012: 29), 주희·장식(張栻)과 더불어 동남삼현으로 일컬어지는 남송의 유학자 여조겸(呂祖謙)은 주희와 더불어 학문을 논하기 위하여 선하령을 넘나들었다. 채양(蔡襄)과 육유(陸游)가 복건에 부임하고자 선하령을 넘었고 당의 장구령(張九齡), 북송의 왕안석(王安石), 남송의 양만리(楊萬里) 등 시인들이 선하고도를 지나갔다.

또한 선하령을 넘은 유명한 과객들이 많았는데 선하고도가 뚫리기 전인 804년에 일본에서 표류해온 공해(空海) 스님은 민강을 타고 올라와 포성을 거쳐 선하령을 넘었고, 항주를 떠난 마르코 폴로는 전당강을 거치고 선하령을 넘고 민강을 따라 복주에 이르고 천주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명나라의 지리학자 서하객(徐霞客)은 1620년부터 10년간 선하령을 3차례나 넘으면서 많은 글을 남겼다(羅德胤, 2016: 16-42). 1797년 3월 26일에 조선의 장군 이방익이 또한 선하령을 넘으면서 이를 그의 「표해가」와 「표해록」에 남긴 것은 역사상의 큰 족적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선하령은 인구의 이동, 상품의 교류, 문화와 풍속의 전파 등을 통하여 이민족의 화하화(華夏化)를 촉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13일 9시에 강산역에 내린 우리는 50km를 달려 선하관을 찾았다. 중국에 오기 전에 일정협의를 하면서 내가 선하관을 지목한 것은 거기에 가면 현지정보를 얻을 것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하관은 선하령으로 오르는 산길의 초입에 불과했다. 초입의 주차장에서부터 선하관까지는 포장이 안 된 흙길이었는데 선하령으로 가는 옛길을 거의 원형대로 보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100m쯤 비탈길을 오르니 웅장한 규모의 성곽이 나타나고 가운데 궁형의 문이 보인다. 선하관은 양쪽에 산줄기를 낀 계곡에 위치해 있다. 선하관은 선하고도로 지나는 행인들을 검문하고 도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관문으로 본래 4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일관문만 남아 있다고 한다. 동서 총 연장이 40m, 높이가 7m, 폭이 5-7m인데 특이한 것은 문루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는 무단 통과하는 외적을 문루에서 처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측의 선하고도문화진열관에는 각종 병기와 기물 등의 유물이 진열되어 있고 사면의 벽에는 시인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남긴 시들이 걸려있다. 언덕에는 황소의 석상이 관문을 향하여 굽어보는 듯하고 주변의 비석 광장에는 판독하기 쉽지 않은 시비와 시단이 널려 있다. 정상을 향하여 오르자니 돌계단이 줄지어 깔려 있고 양편으로는 대나무와 나무들이 울울창창하다.

선하관을 나선 우리는 풍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풍령에서 내리닫이 길로 5km 되는 입팔도(廿八都)까지 차로 올라갔다. 입팔도는 이십팔도의 준말로 남송대에 형성된 군사주둔지로 강산현 12개 촌에 44개의 진지를 만들었는데 그 후 제28진지인 입팔도만 잔존해 있다. 외적을 방비할 목적으로 세워진 입팔도에는 청나라 때만 해도 1,000-2,000의 군사가 주둔하고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입팔도는 풍령에서 내려오는 선하고도의 첫 길목이라 이방익 일행이 다녀간, 다녀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집을 짓고 살고 있다.

> 녕이 간신이 ᄂᆞ려 이십 니를 힝ᄒᆞ여 만수교라 ᄒᆞᄂᆞᆫ 다리의 니ᄅᆞ니 교하의 강슈 도도ᄒᆞ더라. 다리를 건너가니 셩쳡과 셩문이 잇ᄂᆞᆫᄃᆡ 셩밧긔 월도[34] 댱검을 무수이 세웟거ᄂᆞᆯ 무른즉 강남 가ᄂᆞᆫ 뎨일 요로니 진장이 엇셔 직회ᄂᆞᆫ니라 ᄒᆞ더라.(「표해록」)

초입의 주파교(珠坡橋)란 팻말이 붙은 다리는 풍계(楓溪)를 가로지르는데 다리 위에 정자가 있고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풍계를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다리 아래에서 녹청색의 소(沼)를 이룬다. 필자는 이방익이 언급한 성첩이 바로 입팔도이며 그가 건넌 다리가 만수교란 확신을 갖는다. 그 성첩이 '강남(강산현)으로 가는 제일 요로이고 진장이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입팔도는 군사 주둔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파교가 만수교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리를 지나 입팔도로 들어가면 초입에 만수궁(萬壽宮)이란 묘우(廟宇)가 있기 때문이다. 만수궁은 강서회관(江西會館)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어떤 독지가가 하천을 건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건설하였는데 그 후 만수궁은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평안과 재부를 기원하는 묘당이 되었다고 한다(羅德胤, 2015: 210-214).

입팔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명·청시대의 건물군, 특히 당시 부자들의 고가와 전각 및 사당들이 즐비하고 고풍스러운 옛 거리에는 식당과 노점이 늘어서 있다. 우리는 입팔도의 옛 거리를 걸으면서 상당한 규모(건물 면적 500-1,700㎡)의 고가들을 둘러보았는데 솟을대문의 문루에는 보란 듯이 조상들의 명패 또는 명구가 새겨져 있다. 내부에는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사가라 접근할 수가 없었다. 입팔도에는 유독 도교식 묘당이 많았는데 관제묘·문창각·동악묘뿐만 아니라 가족 묘당도 있었다. 우리는 관우를 모시는 관제묘와 문재(文才)를

34) 월도(月刀): 언월도 또는 언월도를 사용하는 무술.

기원하는 문창각을 둘러보았다.

입팔도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물류면에서 크게 번창했다. 복건성에서 오는 각종 화물이 여기서 부려져 절강 상인에게 넘어갔고 입팔도에 자리를 잡고 중개무역을 하는 이들도 늘어갔다. 현재 입팔도의 인구는 약 3,600명인데 141개의 성씨들이 산다고 한다. 그 중에서 김(金), 양(楊), 조(曹), 강(姜), 축(祝)씨들은 부호로 행세해 왔다. 좁은 지역에 이렇듯 많은 성씨들이 살게 된 원인은 첫째로 선하고도를 통해 재부를 쌓은 상인들이 터를 잡아 사는 경우, 둘째 물화를 운반하는 도부들이 정착한 경우, 셋째 외부에서 징발된 병사들이 장기근무를 하거나 직업을 바꿔 여기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羅德胤, 2015: 123-126), 넷째 선하령산맥 산중에는 타지에서 굴러온 붕민(棚民)들이 살아왔는데 이들이 입팔도에 자리를 틀은 경우도 있었다(羅德胤, 2016: 49-50). 붕민이란 산속에서 움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송·원시기부터 명나라 중기까지 산지와 해안에 살던 빈민들이 해발 800m 이상의 산지에 살면서 옥수수·감자·고구마를 소규모로 경작하여 입에 풀칠하고 더러는 쪽(물감)·직조·종이제작·도기굽기 등의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채광이나 벌목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산적이 되거나 반란군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어 청나라에 들어서는 그들 산사람(붕민 등)들로 하여금 산에 사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팔도로 이주해 살았다.

선하령을 넘은 이방익 일행은 내리막길로 입팔도, 선하관을 거쳐 협구로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평탄한 길을 걸어 청호진에 이르러 배를 탔을 것이다. 선하령산맥을 발원지로 하여 청호진으로부터 항주까지 이르는 강을 통틀어 전당강(錢塘江)이라 하지만 청호진에서 강산시를 거쳐 구주까지의 지류를 따로 신안강(新安江)이라 부른다.

6. 고멸국(姑蔑國) 고도(古都)

이방익은 그가 수일에 걸쳐 항행한 전당강에서 초나라 옛 도읍

지를 방문하고 그 성터의 웅장함을 노래하고 있다.

초나라 옛 도읍이 천계부에 웅장하다.(「표해가」)

강샹현 제하관의 니ᄅᆞ니 이곳즌 초나라 녯도읍터라 셩곽이 웅쟝ᄒᆞ고 인민의 번셩ᄒᆞ믄 즉금 국도나 다ᄅᆞ디 아니터라. 아ᄎᆞᆷ날 왕ᄂᆡᄒᆞᄂᆞᆫᄃᆡ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좌우의 ᄀᆞ득ᄒᆞ여 마락이[35]의 븕은실이 찰난ᄒᆞ여 교ᄌᆞ 우희 황홀ᄒᆞ더라. 초나라 국도ᄂᆞᆫ 남악산 아ᄅᆡ니 산쳔은 형용티 못ᄒᆞ나 명낭슈려ᄒᆞ믄 무비ᄒᆞ더라.(「표해록」)

위의 문장에서 이방익은 초나라 국도가 남악산 아래 있다고 하고 또 천계부와 제하관을 언급했는데 그 지명은 지역사람들이나 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얻을 수 없고 역사서나 상세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우리는 구주(衢州)에 있었다는 초나라 도읍지를 추적하기로 했다.

필자는 단초를 찾기 위해 구주박물관을 찾아들었다. 1만 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라 신석기시대의 잘 다듬어진 유물이 진열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옥기와 도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필자는 역사관에서 한때 구주지역에 살던 고멸족의 유래에 주목했다. 이방익이 초나라의 옛 도읍터라고 한 것은 고멸국의 고도(古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또한 필자는 구주 고대역사를 탐구하면서 고멸족 나아가 고멸국의 역사를 더듬었다.

『좌전 노애공13년(左傳·魯哀公十三年)』에 의하면 월(越)나라 구천(句踐)이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복수를 다짐하며 오나라 부차(夫差)를 칠 때 고멸의 군사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도왔다는 기록이 있다. 때는 기원전 482년이었다. 고멸족은 원래 황하유역에 거주한 동이족의 갈래로 치우(蚩尤)의 후예인데 주나라에 밀려 회하와 양자강을 건넜고 결국 전당강 유역에 정착했다. 고멸족은 용맹스럽고 전쟁

35) 마락이는 중국인들이 쓰던 둥근 모자를 뜻함.

을 잘하는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고멸국은 노(魯)나라 옛터에 있었는데 상(商)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하자 주나라의 통치에 불복하다가 주나라에 쫓겨 남천을 하여 전당강 유역에 터를 잡았다는 것이 사학계의 공통된 관점이다(占劍, 2016: 29-30).

고멸족은 시간이 흐르면서 화하족華夏族으로 변모해 갔다. 원래 고멸족의 언어는 한어(漢語)와 다르다. 姑와 蔑은 갑골문자에서 일종의 벼를 뜻하는데 한어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고멸국의 관할범위는 구주·수창·탕계·소흥·강서·옥산 등지였으며 고멸국은 초기 초(楚)나라의 속국이었다가 차례로 오나라, 월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기원전 334년 다시 초나라에 병탄되었다(占劍, 2016: 39). 바로 이방익이 언급한 초나라일 것이다.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중앙집권제를 실시했으므로 고멸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진나라 대말현(大末縣)으로 대체되었다.

용유현에 고멸성의 유적이 있는데 송나라 때 발간된 『원풍구역지(元豊九域志)』에 의하면 고멸 옛성은 구강 남쪽 3리, 동문은 영산강(靈山江)에 접한다고 했고 민국시절 발행한 『용유현지』에 의하면 그 성지는 동서 250보(337m), 남북 168보(258m), 높이가 1장7척(5.4m), 두께가 4척(1.3m) 둘레가 470보(722m)라고 한다(占劍, 2016: 29). 고멸성 북쪽으로 3km지점에 용유석굴이 있는데 이는 한나라 이전의 인공석굴로 지하창고 또는 병사주둔지로 추정되고 있어 고멸국과 연결시키는 견해가 있다.

고멸국의 옛터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을 수 없고 안내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난감해 하면서 14일 저녁 우리 탐방단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방익이 초나라 옛 도읍터의 웅장한 성곽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가 본 것이 고멸국의 옛터로 송나라 때까지는 남아있었다 해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 터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필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용유현의 용유상방(龍游商帮)을 방문하지는 것이다. 용유상방은 송나라 때 설치하고 명·청대에 번성하였던 대규모 상가조직으로 당시의 고적이 잔존하고 있으며 전당강가에 위치하여 이방익이 배를 타고 이 유역을 지나면서 고색창연한 성곽과 건물들을 보고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15일 아침 시간을 앞당겨 호텔을 출발하였다. 오전 중에 엄자릉조대를 방문하고 항주에 도착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 때문이었다. 우리는 지난날 명성을 떨쳤던 용유상방의 옛터에 세운 용유민거원(龍游民居苑)을 찾아들었다. 용유민거원은 절강성에서 문화재 가치가 비교적 높고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들을 옮겨놓은 민가 박물관으로 부지면적은 약 2만평이다. 거기에는 명·청대의 고풍스러운 사당·민가·전당·글방·정자·상점 등 30여 점의 고대 건축물이 모여 있다. 용유상방의 찬란한 역사를 말해주듯 정교하고 품위 있는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건축의 보고라 할 만한 곳이다.

남송의 새 황제가 된 고종이 임안 즉 항주에 도읍하면서 항주에는 거대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궁궐과 각종 관청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 거리를 넓히고 대신들의 집과 민가를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전당강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울창한 삼림이 재목으로, 선하령산맥에 빼곡히 들어선 대나무가 가설자재로 강에 띄워져 하류로 옮겨졌고 쌀·차·종이·식물기름·면포·약재·벼루·도서 그리고 각종보석과 옥기·도기 등이 항주로 속속 보내졌다.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집단이 형성되면서 신의성실의 상도가 형성되고 유학을 배우던 선비들이 상인으로 전업을 하면서 상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펴면서는 외래품들이 이곳을 통과해야 했다. 따라서 용유상방은 중국의 유명한 상업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林佛民, 2012: 37-45). 항주는 소주와 더불어 원·명·청 시대에도 끊임없이 상업과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용유상방은

수백 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용유상방은 이방익이 중국을 답파하던 때에도 대항해시대의 영향을 받아 번성했으나 청나라 광서제(光瑞帝, 1871-1908)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정문에 들어서니 높은 패방과 웅장한 건물이 앞을 막는다. 널찍한 거리 양편에 옛 상가와 가옥이 즐비하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운 건물의 담과 문루에 아로새긴 각종 장식을 감상하며 한참 들어가니 뜻밖에도 <姑蔑>이라고 금박한 휘장을 친 찻집이 눈에 들어왔다. 찻집 주인은 이 근처가 고멸국의 수도였다고 우겨댄다. 그러나 고멸도읍지를 찾는 것은 남은 과제일 것이다.

Ⅴ. 유명사찰의 유적고증

1. 호구사

항주에 도착한 이방익은 호송관을 따라 소주를 거쳐 북경을 향해 가면서도 유명사찰을 섭렵하다시피 하는데 항주 북관의 대선사(大善寺), 소주의 한산사(寒山寺)와 호구사(虎丘寺), 양주의 금산사(金山寺) 등이다. 이는 호송관의 배려도 있지만 이방익의 통큰 인간성과 끊일 줄 모르는 호기심 때문일 것이다.

당초의 절강·강소성 탐방 제안서에서 필자는 소주의 호구사 방문을 요청했으나 확정안에서는 호구사가 제외되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중국에 도착한 필자는 그 이유를 가이드 박 선생에게 물었다. 그의 답변에 의하면 호구사라는 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방익은 「표해가」와 「표해록」에서 호구사에 방문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으니 필자는 호구사를 찾아보자고 졸랐다. 우리는 일단 호구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호구산에 분명 호구사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익은 소주차사 왕공의 안내를 받아 호구사를 구경했는데 수십 명의 스님들이 예를 갖춰 영접했으며 이 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법석을 이루고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법당 안에 앉힌 불상의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7층의 호구탑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감격해했다.

> 홀연 놉고 놉흔 칠층탑이 반공의 소사시니 황금으로 무엇ᄂᆞᆫ ᄃᆞᆺ 누른 빗치 긔이ᄒᆞ니 왕공과 ᄒᆞᆫ가지로 ᄇᆡ의 나려 졀문의 드러가니 수십여 명 즁들이 비단 신 신엇ᄂᆞᆫᄃᆡ 아국 목휘[36] 모양이오 목에 이십팔염쥬를 걸고 곳갈을 벗더라. 영졉ᄒᆞ여 드리거ᄂᆞᆯ 짜라가며 보니 ᄉᆞ문이 웅쟝ᄒᆞᆫᄃᆡ 호구ᄉᆞ라 금ᄌᆞ로 현판의 세 ᄌᆞ를 메웟고 문 밧긔 사ᄅᆞᆷ이 무수ᄒᆞᆫᄃᆡ 음식과 실과 파ᄂᆞᆫ 소ᄅᆡ가 즘싱의 소ᄅᆡ 깃더라. ᄉᆞ문과 법당과 익낭을 다 누른 기와로 니어시며 법당 ᄉᆞ면이 삼십여 간인ᄃᆡ 법당의 금부쳐를 탑 우ᄒᆡ 안쳣고 탑을 또 누루게 ᄒᆞ엿더라. 부쳐 안즌 킈가 두 길이나 ᄒᆞ고 몸ᄐᆡᄂᆞᆫ 열아문 아름이나 ᄒᆞ고 비단가ᄉᆞ를 왼편 엇게에 메고 감듕년[37]ᄒᆞ여시니 보기의 웅위ᄒᆞ더라. 칠층탑 우ᄒᆡ 올나셔셔 넷녁[38]흘 도라보니 텬지광활ᄒᆞ고 산쳔이 다 긔이ᄒᆞ더라.(「표해록」)

호구산 초입에 <吳中第一山(오중제일산)>이라 쓴 패방이 우뚝하다. 해발 34.3m의 산을 <제일산>이라고 했지만 역사가 서리고 많은 전설을 품은 산이기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언덕을 오르니 펑퍼짐한 정상에 호구탑이 우뚝 서있어 고개를 한없이 제켜야 꼭대기가 보인다. 탑 앞 광장 여기저기에 큼직한 주춧돌의 흔적이 있는데 여기가 호구사 터임이 분명하다. 220년 전 이방익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호구사가 엄연히 존재하였음을 이방익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호구산은 춘추시대(기원전 770~476년) 말기에 오나라 왕 부차가

---

36) 목휘: 면으로 짠 휘항
37) 감중련(坎中連): 부처가 엄지와 장지를 서로 합하여 앉은 모습.
38) 사방(四方)



[사진 9] 호구탑

아버지 합려(闔閭)의 묘역으로 조성한 해발 34.3m의 낮은 산이다. 매장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백호가 나타나서 무덤을 지켰다는 전설 때문에 또는 그 산이 웅크린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호구(虎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6만 평의 광대한 면적 내에 여러 가지 명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정상의 호구탑(또는 운암탑)이 압권이다. 높이 47.5m인 8각형 7층탑으로 오대 후주 말(959)에 착공하여 북송 초기(961)에 완공되었다. 이 탑은 현재 동북방으로 약 15도 기울어져 있어 중국판 피사의 사탑이라 부른다.

호구탑 앞 광장에서 다리를 건너 언덕의 오른편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언덕 밑에 너럭바위가 펼쳐져 있고 산쪽으로는 두 갈래의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 절벽 사이로 맑은 물이 콸콸 흐른다. 이 연못을 검지(劍池)라고 하는데 왕희지가 쓴 붉은 글씨가 아로새겨져 있다. 검지에는 합려의 시신과 함께 3,000여 개의 검이 묻혔다고 하는데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도 손권도 이 검들을 발굴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는 천인석(千人石)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진다. 첫째는 부차가 아버지 합려의 시신과 더불어 각종 보물들을 묻고서는 그 작업에 참여한 1,000명의 군사를 이 돌에 모아놓고 몰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이 돌에서 붉은 피가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 왕희지의 글씨에 붉은 색 물감을 입혔다는 것이다. 둘째 이 너럭바위를 생공(生公)의 강당이라고도 부르는

데 생공이 설법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공은 동진 시대의 축도생(竺道生)을 말하는데 그가 불경을 강했으나 듣고 믿는 사람이 없어서 돌을 모아 놓고 신도 삼아 지극한 이치를 이야기하니 돌들이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한다. 그는 불교와 노장사상을 접목시키고 세속의 인간들도 득도하면 생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검지 옆에는 생공의 강단과 오석헌이라는 낡은 정자가 있는데 오석(悟石)은 깨달음의 돌이라는 뜻이다. 박지원 또한 호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탑을 돌아 남쪽으로 가면, 대대로 전하기를 생공강당과 오석헌이 그곳에 있다고 하며, 오석헌 곁에는 검지가 있는데 칼로 잘라놓은 듯이 양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으며,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소리 내어 흐르는데 그 아래에 사방이 트이고 한없이 넓은 거석이 있어 그 위에 천 명이 앉을 만하고…(「서이방익사」)

2. 금산사

양자강을 건너 북경을 달려, 거기서 황제의 재가를 받아 귀국길에 오르기도 바쁜 이방익은 여정을 뒤로 미루고 방향을 틀어 금산사를 방문했다. 금산사는 양자강 가운데의 섬에 세운 절인데 그 섬에 높이가 백여 장, 둘레가 3,4리 되는 석산이 있다고 이방익은 말한다.

> 이십오일의 양쥬 강동현의 니ᄅᆞ니 다ᄉᆞᆺ 호슈가 합슈ᄒᆞᆫ 곳이라. 가온ᄃᆡ 셕산이 잇ᄂᆞᆫᄃᆡ 놉기 빅여 댱이오 쥬회[39] 삼ᄉᆞ 니나 ᄒᆞᆫᄃᆡ 돌기동을 가로 ᄭᅦ여 셰우고 돌을 갈아 마루를 노코 삼십여 간 집을 그 우히 지어시니 이ᄂᆞᆫ 또ᄒᆞᆫ 금산ᄉᆞ라 ᄒᆞᆫ 뎔일너라. 풍경 열네흘 뎔 ᄉᆞ면의 달고 목인을 열네흘 민ᄃᆞ러 죵경 겻히 셰워시니 법당 우히셔 목인이 ᄯᅴ를 기ᄃᆞ려 머리로 풍경을 바다 소ᄅᆡ를 ᄂᆡ며 그 남은 목인이 ᄎᆞ례로 바

39) 주회(周回): 둘레

다 소릭를 ᄂᆡ니 쳥아ᄒᆞ여 막ᄃᆡ로 티나 다르디 아니ᄒᆞ여 쪽곰도 시긱을 일치 아니ᄒᆞ니 그 조화가 신긔묘묘ᄒᆞ더라.(「표해록」)

금산사는 오색의 채와로 지붕을 덮었으며 절 앞에는 석가산이 있는데 높이가 백 길은 됨직하고 또 섬돌을 5리나 빙 둘렀으며, 이층의 누각을 세웠는데 아래층은 유생 수천 명이 거주하면서 책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고 위층에는 노랫소리 피리소리가 하늘을 뒤엎었으며,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싯대를 잡고 열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석가산 위에는 십자형의 구리기둥이 가로놓이고 석판으로 대청을 만들었으며, 또 종경 14개가 있는데 목인(나무인형)이 때에 맞춰 저절로 치게 되어 있어 종 하나가 먼저 울면 뭇 종이 차례로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서이방익사」)

우리는 이방익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가 220년 전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확인하고 박지원이 문헌을 통하여 탐구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금산사를 두루두루 살피기로 했다.

금산사는 당초에 양자강 가운데 있는 금산이란 섬에 창건한 절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강변과 금산 사이에 토사가 쌓여 육지화한 것이다. <金山>이란 편액이 걸린 문으로 들어가니 서쪽의 강둑을 향해 누런색 담장이 솟았는데 문 양편 누런 벽에 <金山寺> 그리고 <江天禪寺>란 글씨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는다. 절문을 들어서니 웅장한 모습의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전당 안에는 석가모니·아미타불·약사불 등 삼존소상이 안치되어 있고 양편에 18나한이 지키고 있다. 대웅보전 뒤에 천왕전이 자라잡고 있다. 이들 대웅보전과 천왕전은 1948년 화재로 불타버렸는데 지금의 건물은 1990년에 중건한 것이라 한다. 이방익은 이 건물들 4면에 14개의 풍경이 있어 여기에 연결된 나무인형이 차례로 종을 치곤했다고 했는데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천왕전 뒤에 장경각이 자리 잡고 있다. 장경각 오른편에 박지원이 언급한 묘고대(妙高臺)의 현판이 보이지만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 묘고대는 동서남 삼면이 트여 달빛이 강물에 비쳐 거울처

럼 반사된 양자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누대였지만 지금은 앞강이 육지로 변했으니 쓸모없는 곳이 된 듯하다.

가파른 계단을 걸어 등성마루에 오른다. 남쪽으로 <江天一覽(강천일람)>이라고 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청나라 강희제가 양자강과 하늘이 일체가 되어 연출하는 웅혼한 광경을 보고 감동하여 쓴 글씨라 한다. 언덕 북쪽에는 자수탑(慈壽塔)이 우뚝 서서 웅자를 뽐내고 있는데 팔각형의 칠층탑으로 탑고가 36m라 한다.



[사진 10] 금산사 자수탑

양자강 가운데의 산(山), 이방익의 표현을 빌리면 삼리석산(三里石山)(「표해가」) 또는 높이가 100여 장, 둘레가 3,4리가 되는 석산이 있다(「표해록」)고 했고 박지원은 높이가 백 길은 됨직하고 섬돌을 빙 두른 석가산(石假山)이 있다(「서이방익사」) 고 했다. 직전에 양주대 교수진들과의 회합에서 양자강 가운데 석산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한 교수는 양자강에 석산이 있을 리 없다고 단언하며 이방익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말했을 것이라 한다. 필자는 자수탑을 받치고 있는 이 언덕 자체가 소위 <삼리석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행과 떨어져 언덕 뒤편으로 가서 자수탑 후면을 올려다보았다. 언덕은 돌을 켜켜이 쌓은 다음 흙을 다져 올렸고 다시 그 위에 돌을 쌓은 석가산 즉 인공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주와 양주 지방은 대부분 토사가 퇴적된 땅이기 때문에 구릉 같은 낮은 산이 있거나 운하를 판 흙으로 쌓은 인공산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강이나 호수에 있는 작은 섬들을 산이라 표현한다. 금산과 더불어 주변의 북고산(北固山), 초산(焦山)은 산이라기보다는 섬이며 태호 안에 있다는 72개의 산도 현대의 상식으로 보면 섬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방익표류기』를 집필하면서 <백장(百丈)의 삼리석산>에 대하여 알 도리가 없어 얼버무렸으나 이번에 살펴보니 백장의 높이는 평지나 다름없는 금산사의 터 위에 세운 석가산의 높이이며 삼리는 석가산의 둘레를 말한 것이었다. 그 동안 책으로만 보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풀리니 이번 여행의 보람이다.

금산사를 떠난 이방익 일행은 운하에 배를 띄우고 북상하는 길에 왕가장(汪家庄)에 들렀다.

> 승션ᄒᆞ연지 즉일의 슈로로 갈ᄉᆡ 이십구 일의 왕가장이라 ᄒᆞᄂᆞᆫ 짜ᄒᆡ 니ᄅᆞ니 이ᄂᆞᆫ 녯 왕가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일촌젼디와 긔믈을 다 삼은고로 왕가장이라 ᄒᆞ더라.(「표해록」)

양주대 교수들과의 회합에서 필자는 이방익이 강남에서 마지막으로 들른 <왕가장(汪家庄)>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수소문한 끝에 양주대의 젊은 교수 왕준(汪俊)의 조상 집성촌이 수서호(瘦西湖—수양제가 만든 아름다운 호수)부근의 온천도가촌(溫泉度假村) 즉 온천휴양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방익은 왕가장을 떠나 산동성으로 넘어갔는데 산동성 이후로는 수레를 타고(「서이방익사」) 북경으로 향했다.

Ⅵ. 결론 및 남은 과제

복건성 지방사 편찬위원회와의 회합에서 유걸(兪杰) 부주임과 몇몇 연구원들이 13세기 이전 해상무역과 문화교류를 통한 고려와 송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회상하면서 이방익은 그 후 5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강남지역(복건성·절강성·강소성 등)을 방문했으며 우리 일행은 그 후 200년 만에 이방익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며 의미를

두었고 또 한 연구원은 “중국을 답파한 사람으로 마르코 폴로가 상인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봤다면 이방익은 장군의 시선으로 사회, 문화, 풍습을 보고 더 많은 자료를 남긴 것 같다. 마르코 폴로에 대하여는 중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이방익에 대하여는 중국에 자료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방익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중국 강남과 대만을 처음 답파하여 기록한 사람이었기에 대단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강남을 이상향으로 삼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지만 이는 중국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정치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강남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정조는 이방익의 경험담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정조는 이방익이 3만 리 길을 다녀오면서 자양서원·자릉조대·악양루·금산사 등,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며 매우 기인한 일[40]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박지원은 이방익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입관을 통쾌하게 깨뜨렸으니 그 공이 보통의 사신보다 낫다(박지원 저, 정민, 박철상 역, 2005: 382)고 하면서도 이방익을 무식한 일개 무인으로 간주하여 그의 말을 귀담아듣기보다는 중국문헌과 자신의 상상력에 의지하려 했다. 이방익이 한문문장 실력은 없는지 모르지만 「표해가」에서 보이는 가사 작법과 해박한 지식은 뛰어나며 「표해록」에서는 보이는 문장력과 어휘력은 능수능란하다.

박지원은 이방익이 제주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전주 사람이라고 둘러댔다고 썼으나 이방익은 대만부의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관직을 서슴없이 밝혔는데 그는 조선인의 자존감을 보여주고 당당한 조선의 장군임을 드러냈다. 팽호도에서는 마조교 지도자 마궁대인이, 대만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이 그를 접견했고 하문에서는 관부장이 진수성찬으로 대접했다. 복주에서부터는 황제가 임명한 오현사 순검이 호송했는데 <조선인호송>이라는 기치를 휘날리면서 보무도 당당히 나아

40) 『일성록』, 1797년 윤6월 22일.

갔다. 항주와 소주에서는 미인들과 연회를 즐기기도 했다. 이는 제주인 이방익이 흔한 표류객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세계인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이었다.

이방익은 자신이 보고 느낀 강남 문물에 대하여 아낌없는 예찬을 보냈는데 이는 자신의 자긍심과 연결되어 증폭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난행보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방익은 장강을 거슬러 동정호를 찾았고 거기서 악양루에 올랐다고 썼고 양주로 돌아와 산동을 거쳐 북경으로, 거기서 황제의 재가를 얻어 만주를 거쳐 귀국했는데 필자는 본 논문을 현시점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방익은 「표해가」와 「표해록」에서 공히 동정호를 다녀왔다고 썼고 임금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박지원은 이방익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방익의 말을 일축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머지않은 시점에서 필자는 장강을 따라 동정호를 답사하여 이방익의 노정을 고증할 작정이다. 산동을 거친 일에 대하여는 이방익이나 박지원이 자세히 쓰지 않았고 북경과 만주에 대하여는 사신들이 다녀온 기록이 부지기수라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끝으로 필자 등이 이방익의 발자취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나온 길과 장소, 주변의 지명을 이방익이 상세히 적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정(道程)의 순서도 바뀌거나 뒤죽박죽된 경우도 많았다. 잘못 기록한 사례도 많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명 또한 바뀌었거나 없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필자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옛 문헌을 참고하여 노선을 고증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시간에 쫓겨 주마간산 격으로 보아 넘겼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고 필자의 상상력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권무일, 2017,『이방익표류기』, 평민사.

박지원 저, 신호열, 김명호 옮김, 2007,『연암집』, 돌베개.

_____ 저, 정민, 박철상 역, 2005,『연암선생서간첩』, 대동한문학.

이방익, 연대미상,「표해가」,『승정원일기』, 서강대 로욜라 도서관 소장.

_____, 1914,「표해가」,『청춘』.

이용기 편, 정재호, 김홍규, 정경욱 주해, 1992,『악부』,『일성록』.

장한철 지음, 정병욱 옮김, 1993,『표해록』, 범우사.

전상욱, 2011,「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국어국문학』, 159집.

주완요 지음, 손준식, 신미정 옮김, 2003,『대만, 이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羅德胤, 2015,『廿八都古鎭』, 商務印書館, 中國.

_____, 2016,『仙霞古道』, 商務印書館, 中國.

譚其驤 主編, 1996,『中國歷史地圖集(淸時期)』, 中國地圖出版社. 中國.

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 2004,『福建省歷史地圖集』, 福建省地圖出版社, 中國.

葉恩典, 2007,「古代泉州與新羅高麗的海上交通及其文物史迹探源」,『中韓古代海上交流』, 遼寧民族出版社, 中國.

林佛民, 2012,『衢州記憶』, 浙江人民出版社臧勵龢 等編,『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世紀出版社, 中國.

臧勵龢 等編, 2015,『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世紀出版社, 中國.

占劍, 2016,『衢州古代史』, 商務印書館, 中國.

湯錦台, 2011,『大航海時代的臺灣』, 如果出版社, 臺灣.

黃水看, 2005,『泉州文化古迹』, 中國文聯出版社, 北京.

Abstract

Geographical-Historical Research on the Journey of Lee Bang-Ik

Kwon, Moo-Il*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tudy historical evidence on Lee Bang-ik's long journey across China for nine months after he was cast away on the coast of China. This historical research is mainly based on close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such as Pyohaerok and Pyohaega written by Lee Bang-ik, and Seobangeeiksa by Park Jee-Won, and also conducted by exploring the historic sites mentioned in the literature. Lee Bang-ik (1757~1801) who was in government service visited Bukchon-li in Jeju Island on September 1796 in order to move the grave of his mother at Udo Island. On the way back, he and his group encountered a storm and was adrift. After sixteen days of drift, they finally arrived at Penghu Island on the coast of Taiwan, and was interroga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 But Lee gallantly told them about his position in Chosun as a public official, and as a result was treated as such. After that, his group were transferred to Xiamen in China and were praised by Chinese people for participating in Zhuzi auditorium. They were so warmly welcomed by local people wherever they go, and some Chinese people liked their clothes. They also walked across Xianxialing, the border between Fujian and Zhejian, and also visited scenic spots. And also they stop by famous temples in Hanzhou and

* Story writer, History writer

Sujou. Lee reported what he had experienced to the King Jeongjo, who was very impressed by all this. But Park Jee Won thought that Lee's testimony was not correct in many respects, and tried to confirm Lee's testimony, on the basis of some Chinese literature. Pyohaega and Pyohaerok) are the essays Lee wrote about his experiences in China. The latter contains more detailed and substantial information than the former. But still there are many part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for many reasons. Our research team followed Lee Bang-Ik's journey, and supplemented our research data through correspondence with some Chinese scholars and their works. Eventually, I found out that Lee Bang-Ik's essays are closer to the truth than Park Jee-Won's essay.

Keywords : Lee Bang-ik, Penghu Island, Xianxiagudao, Park Jee-Won, Jinshansi.

교신 : 권무일 63049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구엄동1길 22
(E-Mail: mikwithus@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9. 07. 19
심사완료일 : 2019. 08. 05
게재확정일 : 2019. 08. 06